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복지로서의 시네마테크’
모델 제시”**

무계극장

목 차

I. 서론	3
1. 탐사 배경	
2. 탐사 주제 및 목표	
II. 본론	6
1. 국외 기관	
1) 시네마 디프런스 Ciné-ma différence	
2) 시네마떼끄 프랑세즈 Cinémathèque Française	
3) BFI Southbank	
4) Hackney Picturehouse	
5) Film Hub North	
6) SFI (Swedish Film Institution)	
2. 국내와 국외 기관 비교	
1) 지역 격차	
2) 대상별 교육	
3) 장애 친화	
4) 소득격차	
5) 예산구조 및 정부와의 관계	
III. 결론	47
1. 의의 및 한계	
2. 무계극장 모델	
3. 느낀 점	
IV. 참고문헌	51

I. 서론

1. 탐사 배경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영화는 재화인가, 복지인가? 시네마테크는 이 물음에 간단한 대답을 제시한다. 영화는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지적 권리이며, 언제든지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말이다. 본 팀은 교내 학생복지를 위한 자치단위연합회 소속 상영관인 이화시네마떼끄를 운영해 온 구성원들이 주축이 된다. 시네마떼끄 활동을 해오면서, 본 팀은 ‘재화로서 평가받는 영화’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좀 더 깊이 탐구해보고자 탐사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교내 ‘Right Light Festival’에 아동인권영화제로 참가한 경험은 영화에 대한 팀원들의 철학을 정립시키는 계기였다. 영화 큐레이팅을 위한 세미나, 관객과의 대화 등 토론의 발촉제로서의 영화는 타 매체보다 생각의 전환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미디어임을 느꼈다. 또한 외부 독립영화관과의 협업 과정 중 그들이 처한 환경을 목격함으로써 국내 독립영화관의 위기를 절감하였으며, ‘패럴스마트폰 영화제’ 등 소외계층을 위한 영화 프로그램 기획에 참가하며, 영화는 다름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묶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느꼈다. 이렇듯 ‘복지로서의 영화’라는 가치관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영화가 재화로서 평가받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포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국내 독립영화관의 위기다. 영화의 해외 상품화 등 문화예술에 대한 산업적 접근의 포화는 국내 극장가의 쏠림 현상으로 이어진다. 2018년 상위 50개 영화의 매출액 점유율은 80.9%로, 두 편의 1000만 영화 <신과 함께>, <어벤져스>만 합쳐도 11.2%의 점유율에 달한다.¹⁾ 이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배급사 배정과 스크린 확보에 따른 결과다. 공정영화협동조합 ‘모두를 위한 극장’은 대형 이러한 스크린 독점으로 묻히는 독립영화를 발굴하는 단체다. 그들이 상영하는 영화제에 GV로 참가했던 경험에 따르면, 여전히 독립영화를 찾는 관객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영화는 재화로서 평가받기 때문에, 독립영화를 찾는 관객의 수요와 운영을 위한 예산의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국내 영화 복지 프로그램의 문제점들 또한 발견하였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영화 복지 프로그램의 향유는 지역적으로 편차가 크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영화공동체나 다양성 영화 상영관, 해설과 함께하는 상영 프로그램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지역의 경우 영화 자체의 제한적 상영 때문이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접하기 힘들다.²⁾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으나, 여전히 지역별로 문화적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둘째,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도 연령대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며, 특히 교육과정과 연계가 부족하여 학교에서 영상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중, 장, 노년 관객층을 겨냥한 콘텐츠 또한 부족하다. 그들의 관심사와 눈높이에 맞춘 영화 해설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문화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의 실효성 또한 전반적으로 제고해 보아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1) 김성호 기자, “악화되는 극장가 쏠림현상, 문화다양성 훼손 우려”, 2019.02.04, <http://www.fnnews.com/news/201902041424139032>, 2019.03.01.

2)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전국 극장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극장 수의 총계는 483개, 서울 지역 극장 수는 86개로 서울에만 극장의 20%가 분포되어 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해 주는 문화누리카드의 경우, 앞서 지적한 지역별 문화격차에 영향을 받는다. 2019년 올해로 지원금은 8만원으로 늘어났지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여건이 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사용자 수가 수도권보다 현저히 낮다. 가맹점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므로 여러모로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무계(無界)극장’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재의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사회 각층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향유의 공간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의 시네마테크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영화를 상영하고 지식인들에게 담론의 장을 형성해주는 공간이었으나, 영상 접근성이 높아진 현재에는 이전과는 차별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내의 독립영화관들이 존폐의 기로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시네마테크의 부흥’을 제시한다. 재화가 아닌 복지로서의 시네마테크는 영화교육 및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뿐만 아니라 최근 추세인 취향 공동체로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탐사주제 및 목표

본 팀은 탐사배경에서 밝혔듯 지역, 연령, 소득 등에서 배제된 사회적 소수자가 예술향유에서도 주류에서 벗어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국내 기관 사전답사 및 자문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의 자세한 실태와 이러한 문제가 생겨난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격차/연령적합성/소득격차/장애인 네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시네마테크의 선진 사례를 선택, 탐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지도 하에 각 기관들의 강점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한 소외계층의 영상문화 향유를 위한 ‘복지로서의 시네마테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와 국외의 시네마테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이나 ‘질’이다. 대표적 시네마테크인 프랑스의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는 관객정책에서 연령뿐만 아니라 직업, 전공, 거주지역 등의 면에서 관객층이 얼마나 다변화되었는지를 명시한다. 예를 들어, 영화 아틀리에를 통해 필름 생산을 경험한 유아동층은 향후 관객층(또는 제작층)이 되는 것이다.³⁾ 이에 반해, 계량적인 성과가 우선시되는 국내 평가제도의 특성 상, 질적확대는 평가절하되는 실정이다. 그 예시로, 한국영상자료원 박노민 부장은 본 팀과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좋은 프로그램이더라도 이용자 수가 적으면 성과로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라 밝혔다. 또한 국내 시네마테크의 문제로는 정부, 지역자치단체, 민간, 세 분야간의 연계가 약하다는 점이다. 영국영화협회(BFI)의 하위기관인 BFI Neighbourhood는 장비 지원, 프로그램 기획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지자체를 잇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영상자료원은 정부의 예산지원부족과 지자체의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 연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다.

같은 시네마테크라도 각 기관의 타겟층은 다르다. Cinematheque Francaise, BFI Southbank, SFI는 연령별, 대상별 연수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기관이며, BFI Neighbourhood, Institut Lumiere는 지역 및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기관, Cine-ma difference, Retour D'image는 장애인을 위한 영화기관이다. 이렇듯 지역격차/연령적합성/소득격차/장애인 네 가지 기준 각각에 강점을 지닌 각각의 기관과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예산

3) 파리3대학 영화학 박사 여선정, 『아카이브 정책연구보고서: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의 운영과 정책에 대한 연구-영화 전시와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영상자료원, 2017년 12월, 33-34쪽.

구조, 지원정책, 운영현황 등 체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이를 본 팀이 제시하고자 하는 ‘복지로서의 시네마테크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에 참고할 예정이다.

정리하자면, 본 팀의 탐사주제는 “소외계층의 영상문화 향유를 위한 복지로서의 시네마테크 모델 제시-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이다. 이를 위해 실제 국내 시네마테크인 한국영상자료원, 아트하우스 모모, 이화시네마테크, 베리어프리영화위원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해외기관의 모델분석과 국내기관의 담당자 및 영화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진 두 분과의 자문을 통해 가상의 시네마테크 모델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본 팀이 제시하고자 하는 ‘복지로서의 시네마테크’는 단순히 다양성 영화를 보관하고 상영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영화를 보고 읽어내는 능력인 ‘필름 리터러시’를 키우는 장으로 기능함으로써, 영화 공교육 확대 및 향후 영화관객의 양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정부, 지자체, 민간의 연결다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문화복지정책의 유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영화라는 매체가 재화뿐만 아니라 복지로서의 매체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II. 본론

1. 국외 기관

1) 시네마 디페랑스 Ciné-ma différence

1.1) 기관 소개

시네마 디페랑스(Ciné-ma différence)는 장애 접근성의 제고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Ciné-ma différence는 특정 이슈에 관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되었다. ‘특정 이슈’라 함은 다음과 같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은 아마 문화 취미 활동 중 가장 인기 있는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자폐증이나 정신 장애 혹은 신체 장애가 있는 관객에게는 그러한 ‘바깥 활동’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며, 전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영화의 핀트가 어긋난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 박수를 치거나,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울거나 웃는 사람들은 다른 보통의 관객들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빈번하게 받을 수 있고, 가끔은 반기지 않는 표정이 따르기도 한다. 장애 아이 또는 십대, 그리고 함께 하는 어른, 가족들은 공공장소에 ‘감히’ 오다가 곧 떠나는 게 낫겠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Ciné-ma différence는 이들이 자유롭게 존중받는 편안한 환경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하도록, 장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장애 친화 영화 스크리닝 ‘모두를 위한 세션’을 한다. 무계극장 팀은 6월 25일 프랑스 런던에서 Ciné-ma difference의 대표이자 설립자 Catherine Morhange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파리 외곽에 위치한 Ciné-ma difference

1.2) 모두를 위한 세션 Des séances pour tous

Ciné-ma difference는 2005년 설립 이후 14년에 걸친 시간 동안 Ciné-ma difference는 2,200개의 필름을 150,000명의 관람객들에게 상영했다. 현재 프랑스, 벨기에 전역에 60개 도시가 넘는 곳에서 영화관과의 협력을 통해 매달 필름 상영을 조정하는 네트워크 중이다.

세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개방된다. 연령, 관심, 장애의 측면에서 구분 없이 다양한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영화 시작 전에는 왜 이 상영이 존재하게 되었는지의 이유와 상영의 특수성, 규칙에 대한 설명을 필수적으로 짧게 소개한다. 자원 봉사자가 전체 영화 상영 동안 현장에 참여해 편안한 환경을 보장한다. 관객들은 그들의 특이성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환영’받는다. 참여한 이들 모두는 각자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인정된다. 각자만의 개인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이자 수단인 것이다. 움직임, 단어, 소음, 모두 배척되지 않고, 오히려 환영된다. 언제든지 상영관을 나가거나 재입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 상영 방식

종합예술인 영화가 장애 관객을 놀라게 할 수 있으므로, 상영은 비교적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관객들의 즐거움을 자아내기 위해 진행된다. 관객의 고통, 놀람이나 불안감을 감소



프랑스, 벨기에 전역의 77개의 Ciné-ma différence 상영관

시키기 위해 사운드의 볼륨은 일반 상영관보다 낮은 단계로 조정된다. 상영관 내 빛은 시작부터 갑자기 완전히 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여진다.

나. 의의

Ciné-ma différence는 영화관에 가본 적 없는 장애인들이 평범한 문화 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편안하고 장애 친화적인(friendly) 환경의 문화적 장소의 룰을 발견할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한다. 부모님, 형제 자매를 비롯한 가족들 또는 보호자들은 사회의 비관용적이거나 적대적인 시선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안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상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 관람객들은 장애인 관객과 함께 영화 관람과 같은 레저 액티비티를 공유해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다. 상영 계획

Ciné-ma différence의 상영 일정은 상영 훨씬 전인 1년 전에 세밀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진다. 상영작은 예정일에 가까운 시일에 다다라 결정하는 방식이다. 관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원봉사자의 모집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함이다.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라. 영화의 선정 기준

다양한 예술 영화의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시네마떼끄와 달리 Ciné-ma différence의 영화 상영작은 세심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선정된다. 자폐, 장애, 치매 등을 질환을 지닌 관객들 중 다수는 해외 영화의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자막을 읽기 힘든 경우가 많아 Ciné-ma différence는 자막이 필요 없는 자국의 프랑스 영화만을 상영한다. 관객에게 익숙지 않은 흑백 영화, 무성 영화는 선정하지 않는다. 집중력을 고려해 영화의 템포가 빠르지 않고 3시간을 넘지 않는 짧은 러닝타임의 영화를 선정한다. 어린 나이의 관객을 위해 지나치게 폭력적인 영화는 삼가며, 때때로 아이들과 어른 모두의 관심과 흥미를 아울러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족영화도 상영한다. 2D와 3D 포맷의 영화가 상영된다. 관객들을 사로잡기에 매력적인 춤과 음악 영화도 매력적이다. 관객 모두를 즐겁게 하는 데 아름다운 음악과 단순한 스토리 전개 등의 요소 역시 고려한다.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 아름다운 동물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했다

고 한다. 또는 관객이 직접 신청하고 제한할 수도 있다. 한편,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폭력적이거나 질 나쁜 영화를 볼 권리가 있다는 것도 사회적 쟁점이다.

1.3) Fa Si-La difference 오페라 및 콘서트 쇼



스크리닝 일정 홍보물과 오페라 Comique 안내책자

제공된다. 파리 필하모니의 Relax 콘서트, 파리 오페라 Comique의 Relax 오페라, 파리 내외의 다양한 장소에서 열리는 Relax 극장 쇼 등이 개최되었다.

Ciné-ma différence는 2016년부터 콘서트와 오페라도 시작했다. Ciné-ma différence의 초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위한 영화 스크리닝이 첫 번째의 목표였다. 현재 Ciné-ma différence의 규모는 더 커졌고, Fa Si-La difference의 이름으로 오페라와 콘서트 분야와 협력해 포괄적인(inclusive) 라이브쇼를 제공한다. 주최측과의 협상을 통해 티켓 가격을 낮추는 등의 혜택이 따른다. 쉽고 단순한 문장으로 쓰여진 팸플릿과 브로셔도

1.4) 기술 지원

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Subtitles)

프랑스 영화의 3분의 2는 청각 장애인 또는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을 위한 프랑스어 자막을 제공한다.

나. 오디오 설명 (Audio description)

영화의 대사나 영화 내 캐릭터의 행동 등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오디오 설명 장비가 있다. 프랑스 영화 감독들에게 오디오 설명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할당된다.

1.5) 재정 지원 및 운영

Ciné-ma différence는 비영리 단체로, 예산은 크게 다음과 같이 5가지로부터 지원된다. 시네마 네트워크, 자선(후원)단체, 청소년 교육 부서(Youth education department), 장애 단체 및 조직, 파리 도시의 후원이다. 그러나 이 모두를 합한 지원은 충분치 않고, 파리의 예산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 스폰서십보다는 기부(donation)에 가까운 형태로 이루어진다.

관객 수, 관객 만족도, 후 상영작 선정에 참고가 되는 관람 후기와 영화에 대한 코멘트, 상영 중 일어난 상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 등 자체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1.6) 자원 봉사자

자원 봉사자들은 장애 관객뿐 아니라 모두를 환영하고, 상영의 목적과 규칙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자원 봉사자들은 계단 등의 물리적 장소에서 거동이 어려운 노

인들을 도와주며, 영화 상영 도중 나가거나 재입장하는 관객들을 조명 표지를 따라 안내해준다.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지 않는다. 즉, 스크린을 향해 있지 않고, 관객석을 향해 관객을 살피는 일종의 경호원 역할을 한다. 형광 노랑색의 반사조끼를 착용해 어두운 상영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관객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신뢰하게 된다.

보통 한 번의 상영에 8명의 자원봉사자가 파견되며, 규모가 큰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의 상영일 경우 약 13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한다. 극장의 구조와 크기에 따라 봉사자의 수가 배정된다. 극장의 홍보 포스터, 웹사이트와 자선단체 등의 경로를 통해 모집한다. 자원봉사자는 보통 일 년에 6~10번의 봉사활동을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횟수로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는 가벼운 활동이기 때문에 모집도 어렵지 않다. 자원봉사자의 선발 기준은 '태도'이다. 엄격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면접과 인터뷰를 통해 배우려는 태도와 의지, 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2명의 관리자 아래 3시간의 교육과 훈련을 거친다.



담당자 캐서린이 들고 있는
Ciné-ma différence의 자원봉사자 조끼

무계극장 팀원들과 Ciné-ma différence 캐서린

1.7) 결론

Ciné-ma différence는 15년 전 파리에서 시작해 꾸준한 활동을 통해 현재의 Ciné-ma différence가 있게 되었다. 담당자 캐서린은 복지로서의 시네마떼끄의 설립과 확장에 '시간'과 '꾸준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Ciné-ma différence 초기에는 현재보다 규모도 작았으며, 다른 지역 또는 단체와 협력을 맺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웹사이트 혹은 신문 기사의 통로를 통해 타 지역의 비영리 단체로부터 연락이 오기도 했으며, 그들의 상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Tool box를 배포해 공유가 이루어졌다. 장애 영화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꾸준히 높아졌다. 현재는 다른 협력체를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른 단체로부터의 연락이 먼저 오는 추세라고 한다. 영화관은 장애인 영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고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소통과 연결이 중요함을 밝혔다.

Ciné-ma différence는 장애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탕이 된,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영화관이다. 비장애인의 차별적 시선에서 자유롭게 영화의 문화에 술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충족되는 것이다. 화면 해설, 자막 등 물리적 장치를 활용한 시청각 장애인들의 영화관람 복지에 머물러 있으며, 치매 환자들 또는 행동 장애인들을 위한 이 같은 영화 상영이 단기간의 특별 영화제 이외에 진행된 바가 없는 한국에 Ciné-ma

différence와 같은 영화관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같은 영화 스크리닝을 위한 상설 기관의 설립과 도입의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함께 사회 속에서 공존하는 시민의식, 공존과 배려의 태도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올라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태도이다.

2) 시네마떼끄 프랑세즈 Cinémathèque Française

2.1) 기관설명

결성일: 1936년

설립자: 앙리 랑글루아

위치: 51 Rue de Bercy, 75012 Paris, 프랑스

시네마떼끄 프랑세즈 Cinémathèque Française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자료실로서 영화 유산을 보관, 복원,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4만편이 넘는 영화와 영화와 관련된 자료 및 물건 수천개가 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 협회이며, 프랑스 정부의 재정 감사를 받기에 공공 기관의 기능을 하지만, 민간 기관의 지위이기에 체제 운영과 인사에 독립적이며, 경영전문가가 아닌 문화예술인이 협회 위원장으로 임명된다.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으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예산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번 탐사에서 방문했던 영국의 BFI(British Film Institute) Southbank의 정부와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의 시네마떼끄 프랑세즈 Cinémathèque Française

시네마떼끄 프랑세즈는 설립자 앙리 랑글루아의 구상에 따라 영화상영관, 자료실, 영화 박물관으로 이루어진 이상적 형태의 시네마떼끄가 되었으며 현재에는 상설전시 이외에도 매년 두개의 기획전시가 운영되고 있다. 전시 기획은 자체 제작하거나 외부 제작되며, 이후 국외 순회전시로 이어진다. 내부의 영화박물관의 방문객을 위한 가이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시간대별로 기관을 찾는 방문객의 연령대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이해도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연령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시네마떼끄 프랑세즈에서는 전시와 연계하여 상영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이는 아틀리에 운영으로까지 확장된다.

시네마떼끄 프랑세즈는 영화와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영화 자료실로서의 기능과 이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한국영상자료원의 시스템과 비교 분석해 보기에 알맞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2.2) 교육 프로그램

시네마떼끄 프랑세즈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은 기관 내 문화교육활동 부서(Action culturelle et éducative)에 속해있다. 본 탐사에서 무계극장 팀은 이 부서에서 성인 대상 연수 프로그램(Les stages et formations pour adultes)을 담당하고 있는 끌로에 게르베르-까위작(Chloé Guerber-Cahuzac) 분과의 인터뷰와 시네마떼끄의 행정관 및 박물관 현장 견학

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관련된 브로슈어 등 제작된 자료들을 제공받았다.

시네마떼끄 프랑세즈 내의 프로그래머, 예술가, 그리고 교사가 연계하여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은 예술적 국민을 만들자는 프랑스의 문화교육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초, 중, 고등학생 등의 젊은 관객층 창출에 기여한다.

기관에서는 앞서 상술했던 영화박물관의 전시설명 이외에도 시네마떼끄 자체적으로 편성되는 아뜰리에, 상영 프로그램, 시네콘서트, 영화 연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모든 활동들은 연령별, 대상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프로그램별 권장 학년은 프랑스의 독특한 교육체제 내의 학년 기준에 따라 M(école maternelle, 유치원생), EL(école élémentaire/primaire, 초등학생), C(collège, 중학생), L(lycée, 고등학생), É(étudiants, 대학생) 등의 기호로 표기된다. 이외에도 장애 학생들을 위한 수업, 외국인을 위한 시네마떼끄 가이드 프로그램(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지원) 등 특수한 조건을 만족하는 수업을 따로 개설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은 안내 브로슈어와 홈페이지, SNS 채널을 통해 홍보되며, 1년에 두 번 학기별로 신청을 받는다. 보통 접수를 시작하는 정오부터 당일 이내로 모든 프로그램이 만석이 될 정도로 신청률이 높은 편이다

가. Atelier 아뜰리에

아뜰리에에는 우리나라의 방과후 학교나 워크샵과 비슷한 형태의 수업을 뜻하는 프랑스어이다. 시네마떼끄 프랑세즈에서 아뜰리에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다중화된 프로그램이다. 아뜰리에에는 영화 입문 프로그램, 이론 프로그램,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A. Initiation au cinema (영화 입문)

Initiation au cinema는 영화 입문 프로그램으로, 영화관에 처음으로 방문하거나 영화사, 영화 이론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Parcours musée du cinéma <C'est magique> (직역 : 영화박물관 산책하기 : <마술이다!>)'으로, 영화박물관의 상설 전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프랑스의 마술사이자 초창기 영화 제작과 기술발전을 이끈 선구자 조르주 멜리에스가 발명한 마술적인 발명품을 직접 보고, 이후 아뜰리에에서 해설가의 설명과 함께 초기 영화사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이다.

B. Atelier théorique

Atelier théorique는 이론 아뜰리에로, 영화사와 영화 이론을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이론 아뜰리에 또한 시네마떼끄 프랑세즈의 모든 프로그램이 그러하듯 단계별로 수업하며, 현재 진행되는 9개의 상이한 강좌에서 3개는 초, 중등을 대상으로, 6개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다. 수업은 대부분 2시간 30분 정도 진행된다.

예시 1) 'Créatures Fantastiques(환상 속 생물들)'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수업으로, <노스페라투>, <프랑켄슈타인>, <에일리언> 등 영화에서 등장하는 환상 속의 괴물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 수업 소재로 사용되는 이러한 영화들의 클립을 통해 그림자와 빛의 대립

이 만들어내는 효과, 불안정한 공간이 가져오는 심리적 효과, 설치장식의 중요성 등에 대해 배운다.

예시 2) 'Le cinéma, un monde d'émotions(감정의 세계, 영화)'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수업으로, 어린이 인물이 등장하는 영화가 수업의 소재로 사용된다. 학생들은 영화 속에서 인물이 어떠한 표정과 어조, 혹은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관객에게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배경효과, 미장센, 카메라 기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운다.

예시 3) 'Le Plan Séquence(시퀀스 계획)'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된 수업으로, 미장센과 카메라의 움직임 등이 어떻게 강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관객에게 전달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등, 비교적 심화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다. 이 수업에서는 제목처럼 영화에서의 시퀀스의 구성방법에 대해 살펴보면서, 왜 긴 시퀀스를 만들어야 하는지 등의 전문적 이론교육이 이루어진다.

C. Atelier pratique

Atelier pratique는 실습 아틀리에로, 상술했던 영화 입문 프로그램의 이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방문 및 전시회 방문과 관련된 실용적인 워크숍을 진행하여 영화에 대한 학생들의 기술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론 아틀리에와 마찬가지로 영화에의 이해도와 나이에 따른 집중력을 고려하여 연령별, 단계별로 진행된다. 시네마떼끄 건물의 7층에 교육용으로 마련된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부와 초, 중등부는 2시간 30분, 중, 고등부는 3시간씩 하루 2번 집중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현재 총 6개의 수업이 진행된다.

예시 1) 'Monter et Rythmer(영화 편집으로 리듬 만들기)'는 강의명의 'monter(필름을 편집하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영화 글쓰기에서 근본적이고 결정적이고 단계를 구성하는 몽타주에 대한 수업이다. 학생들은 16mm 필름을 직접 조작하거나 디지털로 편집해 보면서, 영화사에서 편집의 주요 발전 과정을 발췌된 학습자료를 참고하여 몽타주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효과를 알아간다.

예시 2) 'mettre en scene(장면 연출)'은 '연출하다'라는 뜻으로, 미장센, 카메라의 위치, 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수업이다. 직접 짧은 시퀀스의 영화를 만들어보면서 촬영, 편집, 몽타주 등의 기법을 실행해본다.

예시 3) 'écouter les films(영화 들어보기)'는 발췌된 영화를 분석하고 직접 편집에 참여하면서 이미지와 음향효과와의 관계를 배우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마이크와 믹서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만들어 낸 음향효과를 녹음하고 들어볼 수 있다. 타격음, 낙하음, 계단, 문, 말, 숨소리 등을 녹음하고 편집하여 영화에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운다.

나. 공교육과의 연계

시네마떼끄 프랑세즈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아틀리에 외에도 CNC가 만든 초중고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교내 활동 또한 진행중에 있다. 특히 기관이 위치한 파리의 주(州)인 일 드 프랑스(L'Île-de-France)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중이며, 프랑스 국가교육부와 문화부가 구성한 메커니즘의 내에서 기관들의 문화 파트너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시네마떼끄는 현재 보유하고 관리중인 영화박물관의 컬렉션으로의 시민들의 접근을 촉진하고, 학교 커리큘럼에 영화 전문가가 개입하는 연계교육을 가능케 한다.

A. Les options Cinéma

시네마떼끄 프랑세즈는 현재 파리 12구의 폴 발레리 고등학교, 라스파이유 고등학교와 세비네 중학교, 폴 발레리 고등학교와 크레테이유 구의 레옹 블롬 학교의 E.N.S.(고등사범학교) 준비반에 의무수업과 선택수업을 제공 중에 있다. 이외에도 학교기관과 일련의 파트너십을 맺어 서부영화 분석 아플리에, 바바라 드 스탕 중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영화수업, 파리의 중학교들과 함께하는 영화 연출수업 등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매년 결성되고 있다.

B. Classes Festival

2019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던 제7회 Festival du Film Restauré Toute la mémoire du monde(직역 : 세계의 모든 기억 보관 영화제)에서, 학생들은 영화 상영, 아플리에 운영, 그리고 초청자들을 만나는 자리 등을 보조하는 데에 초대되었다.

다. 교사 교육 워크샵

교사 교육 워크샵은 교육 분야 관계자인 교사, 교육 전문가, 문서 작성자 및 사서를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워크샵 과정은 연구자, 비평가 및 영화 전문가가 주도한다. 시네마떼끄 프랑세즈가 주최하는 교육 워크샵은 이론과 실습, 기관에서 진행중인 전시회 및 컬렉션을 기반으로 한다.

A. 일 드 프랑스 지역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 (표 1 참고)

표 1) Formation des enseignants ILE-DE-FRANCE

Académies de Créteil et de Paris 크레테이유 지역과 파리 지역	Académie de Versailles 베르사이유 지역
Stage « Histoire des arts » <미술사> 연수	Stage « Fenêtre ouverte sur le cinéma » <영화 너머로 열린 창> 연수
	Stage « Collège au cinéma » sur une question de cinéma 영화에의 질문, <영화에서의 중학교> 연수

B. 도서관과 영상자료실 연수

시네마떼끄 프랑세즈는 Images en bibliothèque 협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도서관과 영상자료실과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프로그램은 '미디어떼끄의 영화관과 청소년', '허구의 영화', '미디어떼끄의 영화 재발견 및 매개', '영화관과 젊은 연령 대중' 등 총 4개 테마의 연수로 구성된다.

C. Les Apres-midis d'information 정보 오후

크레테이유(Créteil), 파리(Paris), 베르사이유(Versailles) 대학본부의 요청에 의해 조직된 워크샵으로, 시네마떼끄는 교사들에게 영화 교육과 관련된 활동과 교육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라. 국외 연수 프로그램 <영화, 청년기 백년 (CCAJ - Le Cinéma, Cent Ans de Jeunesse)>

현재 시네마떼끄 프랑세즈는 지역과 국내에서의 연수 프로그램 이외에도 국외 차원의 연수 프로그램인 <영화, 청년기 백년 (CCAJ - Le Cinéma, Cent Ans de Jeunesse)>을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의 9개 행정구역과 마르티니크, 과들로프 등의 프랑스 해외영토, 그리고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일본, 영국, 핀란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교육 프로젝트이다. 6-20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영화를 통한 국제적인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다양한 국가에서 파견된 청소년들은 여러 언어로 진행되는 교육 장소와 플랫폼에서 영화감독 등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들과 만날 수 있다. 학생들은 한 해 동안 추출된 영화 클립을 보고 연습을 하는 등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직접 짧은 극영화를 창작하고, 이 영화들은 시네마떼끄에서 상영된다. 참가자들은 영화 제작 방법론, 연기 규칙 등을 서로 배우고 공유한다. 6월에 시네마떼끄에서 열리는 <À nous le cinéma!>에서는 바로 이 아플리에에서 제작된 영화들이 약 1000여명의 대중에게 3일동안 상영되는데, 여기에는 참가자들 이외에도 세계 각지의 젊은 감독들, 교육자들, 시나리오 작가·영화 감독·영화 제작 관계자들 또한 참여한다. 2018년에 열렸던 이 행사에는 아녜스 바르다, 수와 노부히로, 기욤 브라크 등의 영화인이 참여하였다. CCAJ 프로그램은 매년 참여 지역과 국가를 늘리며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중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화 교육자들과 학교 교사들은 다른 국가의 다양한 영화 교육 사례들과 방법론, 즉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영화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영화에 대한 질문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등의 교육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고문서에 관한 서지학 등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다수의 교육자들에 의해 제작된 수많은 자료들은 CCAJ 온라인 사이트(주소 : Cinematheque.fr/cinema100ansdejeunesse)에서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스코틀랜드 영화 교육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며, EDF(Fondation EDF : 프랑스의 기업재단, 2019년 현재 연 4000만 유로로 150여개의 프로젝트 후원)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마. 협력기관

상술했던 다양한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확장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네마떼끄 프랑세즈는 국내의 여러 협회나 조직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ADRC(Agence pour le développement régional du cinéma)는 프랑스 지역 극장 관리 기구로, 시네마떼끄 프랑세즈는 ADRC가 후원하는 학교들을 위한 아플리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에는 <Le Duel au cinéma>와 <Le Cinéma, un monde d'émotions> 아플리에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DES CINES, LA VIE! (직역 : 영화는 내 인생!)은 단편 영화 프로그램으로, 사법 보호를 받는 청소년을 위한 국가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Passeurs d'images 협회와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된다.

ENTREVUES BELFORT는 벨포르(Belfort) 국제 영화제에서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편성 사업으로, 시네마떼끄 프랑세즈는 벨포르 도시의 초등부 교실을 위한 입문 아플리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NFANCES AU CINEMA(직역 : 영화관에서의 유년기)는 국가제도 중 하나인 <Ecole et Cinéma (학교와 영화관)>과 파리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Mon 1er cinéma (나의 첫번째 영화관)>이라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의무를 지닌 단체이다. 시네마떼

끄 프랑세즈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아뜰리에 운영과 영화 상영, 마리 보빈 공연 등을 제공한다.

3) 영국 비에프아이 사우스뱅크 BFI Southbank

3.1) 기관설명

결성일 : 1933년

설립자 : 톰 파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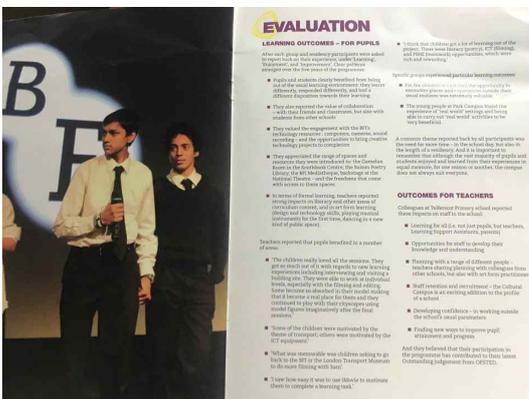
위치 : Belvedere Rd, Lambeth, London SE1 8XT 영국

BFI Southbank는 영국 영화 협회(British Film Institute)는 영국의 영화를 이끌어가는 비영리 조직으로, 영화 제작, 배급, 교육 및 청중개발을 지원한다. 1933년부터 BFI National Archive를 통해 영화 자료를 아카이빙하고 있으며, 축제, 영화복원, DVD 출시 및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BFI는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부서가 후원하는 행정부 비 부서 공공단체다. BFI는 국립 펀드 자금을 개발하여, 영국의 영화 제작자와 영화를 지원하고 그들의 관객을 유치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BFI의 예산 공급처는 크게 정부보조금, 복권기금(National Lottery), 파트너십 총 3가지의 재원으로부터 온다. BFI는 행정부 비 부서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받지만 사무적 간섭은 받지 않는 ‘Arm-length relationship’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파트너십은 UCL(University College London), 개인자선기구, 은행 등과 맺고 있다. BFI의 소비구조는 필름생산 및 배급에 1200만 파운드, 교육 사업에 4만 파운드 정도를 지출하고 있으며, National Lottery의 기금은 직접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BFI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BFI로 돌아가지 않는다.



영국 비에프아이 사우스뱅크(BFI Southbank)



BFI Southbank의 프로젝트 보고서

BFI의 보고 및 평가 방식은 관객수를 세는 양적평가 외에도, 방문객으로부터의 피드백과 인터뷰를 반영한 질적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적평가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된다. 또한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구분야에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BFI 사우스뱅크 센터는 템즈강 이남 지역 문화의 소외지였던 사우스뱅크 지역에서 2000년대 밀레니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리브랜딩 되어 런던아이, 테이트 모던 미술관, BFI (영국영화협회) IMAX 상영관, 셰익스피어 글로브 등과 더불어

유럽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로열페스티벌 홀 (2900석), 시(詩) 도서관, 퀸 엘리자베스 홀 (917석), 퍼셀룸 (372석), 헤이우드 갤러리 등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방문객 300만명, 1300여 개의 공연을 개최하는 유럽 최대규모의 예술센터이다. NFT(National Film Theatre:국립영화극장)을 리모델링하여, 영국 런던에 위치해 있다. 기존의 영화 상영관 3곳을 포함하여 아카이브를 열람할 수 있는 미디어테크, 미술가들이 제작한 영화와 멀티미디어 작품을 상영하고 전시하는 갤러리, 스튜디오, 프로젝트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처럼, BFI가 보관하고 있는 영상자료를 시민들이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전 영화, 독립영화, 비영어권 영화 등을 소개하고 상영하는 상영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으며, 각종 이벤트와 연주회, 영화, 전시회 등을 즐길 수 있다.⁴⁾

BFI의 정기 프로그램은 여성(Woman with a movie camera, guilty feminist), 가족(BFI Families), 청소년(Future Film), 시니어(Senior) 등의 섹션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상영 그 자체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상영과 함께하는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중장년층 관객이 많으며, 그 외에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한 방문 목적이 크다. BFI는 아동, 청소년, 성인,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3.2) 지역격차 - ‘FAN : FILM AUDIENCE NETWORK’



BFI FAN 로고 ©BFI

BFI FAN(Film Audience Network)는 영국 전역의 주요 영화 단체가 관리하는 8개의 영화 허브(Film Hubs)가 맺은 협업 네트워크다. Film Hubs는 영화관, 축제, 전시 등을 포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 네트워크이며, 이 멤버십의 가입 회원은 교육, 재정 지원, 특별 영화시즌 및 프로그램 이용, 네트워킹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 중 BFI FAN은 영국 전역 독립영화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의 일련이다. BFI FAN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1,600,000 이상의 관객 수를 확보하였으며, 40%는 새로 유입된 관객층이다. BFI FAN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This Way Up

This Way Up은 BFI FAN 사업 중 ‘exhibition’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영국과 유럽 전역의 영화관 경영자(출품자)를 초대해 관객 경향과 영화의 미래에 관한 회의를 주최하는 연간 행사이다. 이 행사는 BFI FAN과 Film Hub North, Film Hub Scotland와 함께 주최된다.

4)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93&page=62&txtKeyword=&ddlKeyfield=T 참고

나. Distributor Slate Days

영화 사업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배급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Slate Days는 배급자와 기획자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멀티플렉스부터 인디 영화관, 지역 영화 클럽까지 다양한 기획자에게 비주류 영화를 배급하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한다. Slate Presentations Day와 Meet the Distributor Day로 나뉘며, 전자에서는 배급자가 마케팅 계획, 영화 출품 계획 등을 공유하며, 후자에서는 주최측에서 기획자와 배급사, 파트너간의 1:1 미팅 기회를 마련해준다.

다. Inclusive Cinema

Inclusive Cinema는 영화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사업에서는 치매친화 상영, 자폐친화 상영, BAMER(Black, Asian, Minority Ethnic and Refugee)과 LGBTQIA+관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스터디 기회를 마련한다.

라. Queer Film Network

Queer Film Network는 영국 전역의 스크린 다양성과 퀴어 프로그래머를 지지하고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다. 위 네트워크에서는 영화 축제, 영화 클럽 및 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퀴어 영화 관람의 기회를 확장하고자 한다.

마. FAN New Releases

2016년부터 BFI FAN은 작지만 중요한 영화들을 발견하고 이를 더 많은 관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FI는 마케팅 아이디어나 언론, 예산 등이 담긴 마케팅 템플릿을 제공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는 젊은 관객층과 독립 영화관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바. Indie Box Office Column

Indie Box Office Column은 영화 비평가 Charles Gant가 FAN 회원들에게 매주 제공하는 칼럼이다. 위 칼럼은 독립 영화가 어떻게 박스오피스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회원 기관이 상영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독립영화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사. FAN Major Programmes

Major Programmes는 영국 전역을 아우르는 '영화 시즌'이다. 이는 FAN 네트워크의 회원들 간의 교류로 기획된 상영 프로그램을 영국 전역의 관객들이 향유함으로써 영국 전역의 관객들 간의 연결점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3.3) 교육프로그램 (영/시니어) BFI Education

BFI Education은 BFI Southbank의 교육 팀이 맡고 있는 섹션으로, BFI의 담당부서 중 UK Learning Programmes와 Future Film이 협업하며, Into Film이 파트너로 참가하고 있다.

BFI Education의 목표인 Framework는 다음과 같다.

유럽용 영화 교육 프레임워크						
목표	평생 동안 모든 형식의 영화에 접근하고 향유하며 이해하고 창조하며 탐구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준비시키는 것					
영화 감성						
영화 교육의 핵심 측면	창조적 과정 실천 참여		비판적 과정 실천 참여		문화적 과정 실천 참여	
학습 분야	영화의 특수성	사회적, 개인적 및 협력적인 과정	개인의 비판적인 반응	더 폭넓게 영화에 관여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맥락	사고하는 학습
학습 결과	비판적 사고가	모험적인 창작자	표현이 풍부한 개인	섬세한 기여자	사고하는 직업인	능동적인 협력자
	자신감 있는 탐구자	견문이 넓은 참여자	분별력 있는 관객	열렬한 옹호자	독립적인 학습자	참여하는 시민
경험	모든 형식의 영화와 관계 맺기 영화관에서 영화 경험 과거의 영화 발견 영화 예술 경험					
	영화제작에서 창조적인 기회 경험		민중 문화와 세계 문화에 대한 사고		아이디어와 가치에 대한 식별, 질문 및 사고	
평생 학습자를 위한 성향	호기심	공감	열망	관용	향유	
삶 및 일과의 연관성	개인의 발전		시민적 책임		취직 능력	

BFI Education Framework ©영화진흥위원회

BFI Education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 영유아 및 가족 대상: ‘BFI Family Learning’

a. ‘Film Fundays: Saturday Film Clubs for Children’

BFI Southbank에서 영화제작 혹은 영화와 연관된 창의체험학습을 하는 활동으로, 공휴일이나 방과후에 열린다. Mini Filmmakers’ Club, Young Filmmakers’ Saturday Club로 나뉘며, 전자는 8-11세 대상 주간 영화제작 워크숍이며, 후자는 12-15세 대상 영화와 영화제작에 관한 이론 및 제작 실습 모임이다.



Funday 활동사진



Funday 인터뷰 사진

b. ‘Summer Holiday Film School’ (8-11)

여름방학 중 약 1주 동안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주간학교이다.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영화제작, 특수효과 적용, 사운드 및 편집 등에 관한 경험을 해볼 수 있으며, 활동이 끝난 후 인증서가 주어짐과 함께 유튜브 채널에 해당 학생의 작품이 게시된다.

c. ‘BFI Summer Holiday Film School’ (12-15)

위보다는 심화된 버전의 여름방학 주간학교이다. SFX(소프트웨어와 사운드 등에 관한 특수효과), 소품 제작, 공포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할 수 있다.

d. ‘Stop-motion Mondays’ (8-12)

매주 월요일 오후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장비를 체험하며 이에 관한 기술을 배우고, 상상력

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애니메이션 제작 워크숍이다.

나. 청소년 대상

a. 'BFI Film Academy' (16-19)

BFI Film Academy는 유럽 전역의 16-19세 대상 영화 아카데미다. BFI Film Academy는 시나리오 작성부터 제작,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모든 영화 산업의 역할들을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과 영화 역사와 시네마틱 스토리텔링 등에 관한 이론 교육 등을 수행한다. 사전 필수 교육 등의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우며, 16-19세의 영화에 열정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등록할 수 있다. 일반 교육과정인 Network와 심화 교육과정인 Specialist Residentials로 나뉘며, 수료 이후 'NCFE LEVEL 2 AWARD in preparing to work in the film industry'라는 영화산업 준비과정의 자격인증서 혹은 'Arts Award'라는 영국예술협회에서 발급되는 예술분야 자격인증서가 발급된다.

현재는 이 아카데미의 영국 전역 확산을 위해 지역별 관리자를 두는 BFI Film Academy UK Network Programme을 기획 중이다.

b. 'Future Film' (15+)

'Future Film'은 16-25세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상영, 워크숍, 티켓 할인 등의 혜택을 총괄하는 명칭이다. Future Film은 젊은 영화 제작자에게 국제 영화제와의 연결점을 제공하는 효과를 지닌다.

-Future Film Labs

Future Film Labs는 젊은 영화제작자를 위해 달 별로 진행되는 커리어 개발 행사다. 영화 산업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 네트워킹, 산업 경향에 관한 세미나 등을 연다.

-Future Film Recomm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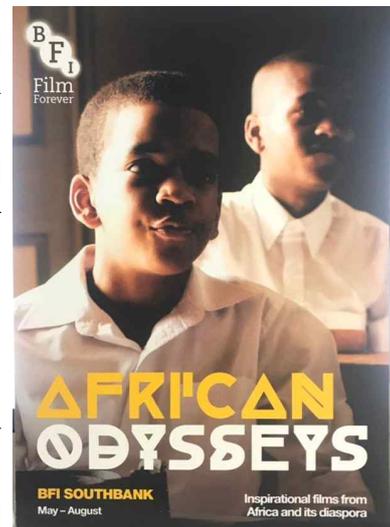
Future Film Recommends는 Future Film의 회원들이 직접 작성하는 영화 비평기사이다. 기사배포 뿐만 아니라 Future Film이 선정한 영화와 상영 후 토론을 무료로 진행하는 행사 또한 주최하고 있다.

-BFI Future Film Presents 'SCENE'

SCENE은 Future Film 회원 중 젊은 영화제작자들이 제작한 작품을 상영하고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자리다.

다. 전 연령 대상 : Adults, students and communities

전 연령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한 세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 'African Odysseys'는 관객층의 대부분이 백인 유럽인인 현실을 감안하여, 매달 아프리카 영화에 관한 상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BFI Southbank가 주최하며, 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카리브해 공동체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African Odysseys'에서는 각 공동체가 어떤 영화를 틀 것인지 결정하는 등 관객의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해당 공동체의 새로운 관객층을 유입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 넓은 문화 다양성에 맞는 프로그래밍을 위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동,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의 영화 커뮤니티와의 협업도 진행 중이다. 위 프로그램은 60세 이상의 관객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Senior's Free Matinee)



아프리카 오딧세이 팸플릿

3.4) 공교육과의 연계

‘Student Study Days’는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에게 간학문적 스터디, 워크숍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은 Primary pupil(5-11세)/Secondary pupil(중등학교: 초등학교와 대학 사이의 학교)/A-Level(영국 연방 대학입학 자격: 대한민국 고3~대1), 총 3 가지 단계로 나뉘어 있다.

가. 영유아 대상

영화는 언어를 습득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영화 내의 스토리(플롯)과 그 안에 담겨있는 타 문화권의 삶의 방식은 언어 습득의 폭을 확장하므로, Primary 과정에서는 언어 및 교과 교육을 영화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전에는 스페인어, 영어 및 역사, 지리학, 수학, 과학, PHSE(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로 세분화된 교과목 연계 학습이라면, 오후에는 단편 영화나 쇼트 등을 활용하는 7-11세 대상 영화 교육에 관한 세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청 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교사에게 BFI Southbank가 교육 장소(BFI Mediatheque)와 교육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Primary 과정을 위한 특별 상영, 애니메이션 제작 워크숍 또한 진행하고 있다. BFI Mediatheque의 시설은 Student Study Days를 위한 토론 및 공동체 관람에 알맞은 형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BFI Southbank Mediatheque ©BFI

나. 청소년 대상

BFI의 영화교육은 공교육의 진출까지 영향을 미쳤다. Secondary pupil 대상 학생은 14세 이후 각자의 ‘GCSE(학위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Secondary 과정 교육)’을 선택한다. 공교육과의 연계 이후 약 4-5%의 학생이 ‘Media & Film’ 과정을 선택하였다. ‘Student Study Days’의 Secondary 과정은 따라서 Film & Media Studies를 중심으로 설계된다. 신문, TV 드라마, 뮤직비디오, 무성영화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다루며, 영화산업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영화이론, 비평까지 다양한 폭의 영화교육을 시행한다. Secondary 과정의 언어 연계 교육은 영어와 MFL(Modern Foreign Languages)로 나뉜다. 특히 MFL에서는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만다린어, 독일어, 불어 등 다양한 문화권의 언어를 활용한 교육을 시행한다. Secondary 과정의 각 섹션은 KS3(11-14세, Secondary 학교 입학 후 3년간을 지칭함), GCSE, A-LEVEL 등 연령대별 수업으로 진행된다.

다. 교사 교육

A.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는 ‘Student Study Days’의 Primary와 Secondary 과정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CPD는 공교육(교실)에서 영화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Primary 과정의 교사에게는 단편영화를 Primary 학교의 교실에서 활용하는 법과 영화를 활

용한 독창적인 커리큘럼 등을 제공하며, Secondary 과정의 교사에게는 MFL 언어 교육에 영화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B. 'Courses, training and conferences for teachers'

'Moving Image Production'은 영화 교육에서의 이론과 실재를 결합한 교사교육이다. 'Film & Media Studies' 과정 교사에게 적합한 과정으로, 비디오 생산과 편집에 관한 기술과 언어에 집중한 교육과정이다. 또한 매년 BFI Media Conference를 열어 교사들과 산업, 연구, 공교육의 최근 경향과 접근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

C. 'Classroom resources for teachers'

BFI는 움직이는 이미지(Moving Images)를 활용한 교육 기술과 소스들, 나아가 연구 자료까지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영화 속 공상과학, 고딕영화, 국제언어 등에 관한 연구 자료뿐만 아니라 '영화 교육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무료로 배포하여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 또한 위의 자료를 공교육 활용에 참고한다.

또한 교사를 위한 훈련 또한 제공하는데, 이는 교사를 BFI로 초청한 후 하루 정도의 워크숍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교사가 커리큘럼을 짜는 형식이다.

3.5) 격차해소 프로젝트

가. 'Film: a language without borders'



'Film: a language without borders' 활동사진 ©BFI

'Film: a language without borders'는 난민 그룹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이다. 이주인구가 유럽의 역사에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으로 이주한 난민들은 문제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장벽 없는 언어'라는 영화의 가능성에 기반하여, 타자를 처음 마주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영화를 통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독일의 영화 및 미디어관련 비영리조직 Vision Kino, BFI (영국영화협회), DFI(덴마크영화협회)가 협업한 위 프로젝트는 다양한 장르와 주제에 입각한 영화를 이주그룹/비이주그룹에 속한 학생 모두에게 3국 동시에 상영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학습 가이드를 배포한다. BFI가 배포하는 일반 영화 교육 지침서들과는 다르게, 이 프로젝트의 지침서는 영화미학, 주제론이 아닌 '공통의 경험의 장'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한다. 열린 질문, 집단 작업, 행동에 기반한 활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대한 다양한 구성원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다.

BFI Southbank는 2018년 기준 863회의 스크린 상영, 7,495회의 온라인 스트리밍, 63,118명의 어린이 관람객이라는 수치를 달성했으며, 어린이들이 직접 전쟁, 이주 등의 주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영화를 예술 형식 중 하나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단편영화와 친숙한 영화(음악영화 등)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단 한 명의 교사도 언어장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덴마크 학생 중 한 명은 "만약 덴마크가 노르웨이나 스웨덴에 의해 폭격 당했다면 어땠을지 의문이 들었다."라고 답하였는데, 이를 비롯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위 프로젝트가 타자에 대한 공감을 창출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BFI는

위 프로젝트가 가정과 학교, '우리'와 '그들'을 연결하는 제 3의 공간을 만들었으며, '필름 리터러시'라는 용어의 쓰임을 넓혔다고 평가한다.

나. 'The Cultural Campus'

'The Cultural Campus'는 BFI, the National Theatre(국립극장), Rambert Dance, SBC(Southbank Centre)가 협력하는 5년 장기 프로젝트로, 문화교육에 있어서 영국 국내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지역 학교의 학생들을 사우스뱅크로 유입하고, 그들에게 사우스뱅크에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폭 넓은 문화적, 예술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학습 장소를 만든다.

위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학교들은 영화관, 주(州)의 예술기술 아카이브, 필름 아카이브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학습집단은 BFI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창의체험학습을 수행한다. 서로 다른 예술 장르를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위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시도들을 해왔다.

- Primary pupil: 구어로 된 시를 영화로 전환하기,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small worlds' 창작, 프로젝트로 상영되는 영화를 배경으로 춤추기, 인도네시아 전통 악기를 가지고 soundscape(일상음을 조합하여 만들어내는 음악) 창작
- Secondary pupil: 고전 명작영화들을 토대로 퍼포먼스 창작, 그 외 중국 픽토그램, 그림자 연극 등

위 프로젝트는 4년이 되는 해에 4485명의 참가자 수를 달성했으며, 참가자 대부분은 15-25세였다. 'The Cultural Campus'는 학생들의 참석률, 몰입, 동기부여 등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예술양식과 ICT(정보통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끔 하였다. 또한 전쟁기념관, 오페라하우스, 예술협회 등으로부터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조명을 받고 있다.

3.6) 영화교육을 위한 시설

BFI는 방대한 양의 영화관련 사료들을 아카이빙하고 있다. 그들은 아카이빙한 필름 자료들을 책 형태로 출판하거나 Southbank Reuben에 위치한 BFI Reuben 도서관 혹은 미디어테크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런던의 중앙 센터가 BFI Southbank, 버밍엄박물관, 국립과학미디어박물관, 맨체스터 국립중앙박물관, 총 4개의 미디어테크에 자료를 전송하는 방식이며, 미디어테크는 BFI 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복원자료들에 대한 큐레이팅 또한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무정부주의, 아프리카 식민영화 등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팅된 상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프라이드 주간에 맞게 LGBT 콜렉션과 LGBT 컬트 행사 또한 함께 진행하고 있다.

4) Hackney Picturehouse

4.1) 기관소개

Picturehouse는 영국의 시네마 체인으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예

술 활동을 향유하도록 하는 Arts 4 dementia와 연계해 지정된 영화관 체인점마다 일정한 날짜에 치매친화 영화 상영(dementia friendly screening)을 주관한다. 그 중에서도 런던의 Hackney Picturehouse는 치매 친화 스크리닝 뿐 아니라 장애인의 영화 접근을 위한 포괄적 장비, 시설과 제도를 갖추고 있다. 각 층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으며, 상영관 내 휠체어를 위해 지정된 하나의 열을 차지하는 관람 공간(좌석)을 온라인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장애인의 가이드 반려동물은 영화 관람 동안 스태프가 돌보아 주며, 시청각 장애인들의 헤드셋과 자막 전용 스크린을 제공한다.

본 팀은 Hackney Picturehouse와의 인터뷰 및 견학을 통해 1)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최신 장비와 시설, 제도에 대한 정보 2) 치매친화상영 진행 방식에 대한 정보 3) 이 외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알아볼 예정이다.

4.2) 프로그램

가. 장애 접근성

A. 기술 및 장비

a. 자막 Subtitle

Hackney Picturehouse는 장애 접근성을 위해 자막 버전의 영화를 상영한다. 영국의 비장애인 대중 관객은 영화의 자막을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개중 어떠한 사람들은 자막이 방해가 된다고 하여 컴플레인도 들어오기도 한다. 경제적 원리에 의해 운영되며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관의 입장에서 주말 등의 피크타임에 자막이 있는 영화의 상영은 어려운 선택인 것이다. 경제적 합의(finance agreement)를 이루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탐탁찮은 반응과 응답에도 자막 버전의 영화 상영을 수시로 편성하고 있다.

■ 자막 안경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의 한 영화관 체인에서는 SONY의 안경을 보급한다. 안경을 착용한 해당 관객에게만 안경을 통해 자막이 보여져 타 관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격이 매우 비싸며(1000p) 구입 가능한 개수도 희소해 널리 보급하기에 어려우며, 내구성이 취약해 쉽게 손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어두운 영화관에서 떨어뜨려 실수로 밟아 부러지는 등의 사고는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일어난다.) 또한 착용 관객이 영화관 내에 착석한 위치에 따라 경사각에 따라 자막이 적절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듯 실효성이 좋지 않아 이러한 최신의 기술과 장비에 선뜻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추세도 있다고 한다. 영국의 National theatre는 현재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안경 장비를 개발 중이다. 펀딩의 최종 단계에 와 있으며, 2-3년 안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오디오 설명이 나오는 헤드폰

b. 헤드폰

청각/시각 장애 또는 손실이 있는 관객들을 위해 장면 등을 묘사하는 오디오 설명이 나오는 헤드폰을 제공한다.

c. 어플 Apps

물리적 장비가 고장날 경우를 고려해 어플을 제공한다. 모바일 기기의 어플을 작동해 자막과 오디오 설명을 이용할 수 있다. 상영관 내의 모든 일반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술적 지원과 장비가 필요한 해당 관객에게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 관객들의 불편과 컴플레인



탈착식 좌석이 있는 Screen 1

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어플의 단점이 제기된다. 첫째, 젊은 연령층의 관객들은 어플을 수용하는 데 거부감이 없고 쉽게 적응하고 이용하지만, 그 외 중장년층 관객들은 개인 정보 공개에 익숙지 않아 어플을 수용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이다. 둘째, 빛이 없는 깜깜한 상영관에서 아무리 조도를 낮춘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켜 어플을 이용하는 것에 타 관객들이 빈번하게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d. 탈착식 좌석 (Removable theater seats)

한국 내 대부분의 영화관은 맨 앞의 첫 열에 장애인 관객의 휠체어 좌석을 배치한다. 영국의 기존의 (또는 일반) 영화관 역시 맨 앞 또는 맨 뒤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간 즈음의 좌석에 휠체어가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관객에게 상영관 맨 앞과 맨 뒤의 좌석은 영화를 보기에 불편한 공간이다. 첫 번째 열은 경사진 각도의 상영관에서 스크린을 올려다보아야 하는, 따라서 때때로 목에 통증이 오는 신체적 불편함이 있고, 마지막이자 가장 맨 뒷열은 영화를 영화를 감상하기에 적합한 스크린의 각도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해크니 픽처하우스는 실용성이 낮은 고정적(permanent)인 휠체어 좌석 대신 이동 가능하고 유연한(flexible) 방법을 고안했다. 제거 가능한 탈착식 좌석(Removable Theater Seats)을 도입한 것이다. 영화를 감상하기에 좋은 중간 즈음의 열에 군데군데 배치된 탈착식 좌석은 트립 포인트의 나사를 돌려 쉽고 빠르게 뺄 수 있으며, 좌석이 탈착된 넓고 빈 공간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다. 공간-효율적인 방식이다. 탈착식 좌석은 해크니 픽처하우스의 모든 4개 상영관에 배치되어 있다. 스크린 1에는 A열과 K열의 2개 좌석, 스크린 2에 중간의 J열에 1개 좌석, 스크린 3에 A열의 1개 좌석, 스크린 4에 A열 1개의 탈착식 좌석이 있다. 휠체어 이용 관객은 이 좌석들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유선상 전화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탈착식 좌석은 한국 국내 영화관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장소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탈착식 좌석은 영화관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의 장소와 공간에서 도입할 시 실용성이 무궁무진한 장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크니 픽처하우스(Hackney Picturehouse)의 장애인/노인 관객의 장비 대여는 2주에 1번 정도의 빈도로 이루어진다. 이용자들이 이러한 장비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와 횟수가 높아지고 있는 현황이다.



나사로 쉽게 탈착 가능한 탈착식 좌석

B. 멤버십 제도

Picturehouse에는 장애인 관객을 위한 멤버십 제도가 있다. 예치금(Deposit) 제도와 CEA 카드 제도, Carer 카드 제도를 운영한다.

a. 예치금 (Deposit)

해크니 픽처하우스의 4개 스크린에서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다. 헤드셋과 같은 청각 장비(Hearing Facilities)를 5파운드의 예치금을 내고 대여한 후, 상영이 끝난 뒤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b. CEA 카드 (Cinema Exhibitors Association Card)

CEA 카드는 영국 시네마협회(UKCA, UK Cinema Association)가 영국 영화관을 위해 개발한 국가 카드 제도이다. CEA 카드를 소지한 장애인 영화 관람객들은 CEA 카드 제도 참여 영화관을 방문할 때 동반자를 위한 무료 티켓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6파운드(2019년 7월 시점 한화 약 8850원)와 적격성 증거, 신분증, 사진 등 간단한 서류 제출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등록 가능하다. 카드는 또한 영화관이 장애인 손님을 살피는(looking after) 방법의 일환으로, 영국 시네마협회(UKCA)는 만약 관객이 자신의 장애로 인해 영화관의 조정을 필요로 한다면, 영화관은 관객의 CEA 카드 소지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 CEA 카드 제도는 영화 산업 전반에 퍼져 있을 정도로 상용화되어 있다고 한다.

c. Carer 카드

Carer 카드는 CEA 카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관객 당사자의 티켓을 할인하고, 보호자/동반자의 티켓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CEA나 Carer 카드 제도는 장애인 관객이 매번 영화관 카운터에서 자신의 장애와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배려와 공존의 태도가 반영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C. 치매 친화 스크리닝 (Dementia Friendly Screening)

치매를 가진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픽처하우스의 담당자 Leah Byrne는 그 이유를 그들이 환대의 경험(Welcoming experience)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Leah Byrne는 영국 내 모든 픽처하우스의 26개 지점의 치매 친화 스크리닝을 비롯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담당자이다. 치매를 앓는 사람들은 종종 공공 장소인 영화관에서 사회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일탈적' 행동을 하여 장소로부터의 사회적 배제를 당한다. 이에 픽처하우스는 한 달에 한 번, 치매의 특수성에 맞추어 조정된 치매 친화 스크리닝을 시작했다.

a. 스크리닝 소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연령층이 대부분 중장년층의 노인이라는 점에서 사운드의 볼륨은 줄이고, 빛과 조명은 완전히 없애는 대신 점진적으로 줄이고 밝게 남겨둔다. 치매 환자들의 다수의 연령층이 노인임을 고려해 청각 손실의 가능성을 고려해 자막을 상영한다. 매표소, 출입구와 같은 안내 사인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는 밝은 형광 노랑색으로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사람들이 혼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픽토그램이다. 영화의 선정은 때때로 최근의 작품을, 보통 오래된 고전 영화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며, 상영시간은 너무 긴 것보다는 짧고 가벼운 1~2시간 내외의 것을 상영한다. 사운드 오브 뮤직, 맘마미아!와 같은 영화들이다. 영화 상영 중간의 인터미션 시간이 있다. 수다를 떨거나 차와 커피를 마시고 비스킷을 먹는 티타임을 위함이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대중을 위한 교육 세션이 있다.

(Information session for the public) 치매환자의 삶,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등의 일종의 세미나와 같은 시간이다.

b. 기능 및 중요성

Leah Byrne는 치매 친화 상영 프로그램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보통의 사람들의 기억 시스템은 경험과 기억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는 적층 시스템이라면, 치매를 가진 사람들의 기억 시스템은 한 층 한 층의 기억이 쌓이다가도 수시로 그 아래에 있는 기억이 와르르 무너지는 체계란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영화 감상의 의미는 영화의 전체 플롯과 스토리를 이해하고 온전히 기억하는 데 있지 않다. 영화를 보고 난 후의 감정(emotion)과 느낌(feeling)에 대한 경험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영화를 보고 난 후 관객들의 느낌과 경험은 그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키며, 긍정적 감정을 강화시킨다. 카페와 라운지는 사람들이 만나 커피와 차를 마시며 대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 세대에 읽던 오래된 잡지가 구비되어 있다.



인터미션 중 티타임을 즐기며 대화하는 관객들
©Hackney Picturehouse

c.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 및 협력

치매 관련 단체, 또는 조직과의 연계도 이루어진다. 의료 조사(medical research) 관련 조직들, 치매 공동체(dementia society)와도 협력을 맺었다. 병원은 홍보의 역할을 한다. 또한 Picturehouse는 BFI와 협력 관계에 있다. 정기적으로 업무나 경험에 관해 공유하는 미팅 자리가 있다.

d. Dementia action week

영국에서 매년 5월에 개최하는 Dementia action week, ‘치매 행동 주간’에 해크니 픽처하우스가 참여하기도 한다. Dementia action week는 사람들, 직장, 학교 및 지역 사회를 하나로 연결해 치매를 가진 사람들의 고립과 외로움을 줄이고 삶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풀기 위한 치매 환자와 어린이와의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모금행사를 진행하며 알츠하이머 학회,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 대



CATCH A CLASSIC MOVIE EVERY MONTH!
Screenings are open to all, but are specially adapted for people living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ies, friends and carers.

 <p>Fri 25 Jan, 10.30 - 12.45 SINGIN' IN THE RAIN (G) 103 mins</p>	 <p>Fri 22 Feb, 10.30 - 12.55 MAMMA MIA! HERE WE GO AGAIN (PG) SINGALONG 114 mins</p>	 <p>Fri 22 Mar, 10.30 - 12.45 MY SISTER EILEEN (G) 107 mins</p>
---	---	---

Screenings take place on the fourth Friday of every month.
Free tea and coffee from 10.30am, film starts at 11.00am.
There will be a 20-minute interval halfway through the film.
Tickets £4, accompanying carers free.

Book in person at the Box Office, online at picturehouses.com, or by phone on 020 7294 7908





Dementia Friendly Screening 브로셔
©Hackney Picturehouse

중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세션이 이루어기도 한다. Dementia action week는 규모가 거대한 행사로 많은 소셜 미디어와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자원 조달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다.

D. 자폐 친화 스크리닝 (Autism Friendly Screening)

해크니 픽처하우스는 자폐 친화 스크리닝을 시행한 영국 첫 번째 영화관이다. 치매 친화 스크리닝과 유사하게 편안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나. 연령별 스크리닝 클럽 및 교육 프로그램

A. 멤버십 클럽

a. 실버 스크린 클럽 (Silver Screen Club)

60세 이상의 장년층을 위한 스크리닝이다. 멤버십은 무료이며, 클럽 멤버는 매주 실버 스크린 상영에서 차와 커피, 그리고 비스킷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티켓의 가격은 £6.90 (한화 약 1만 2천원), 멤버가 아닌 사람들도 일반 티켓 가격으로 실버 스크리닝에 참여할 수 있다.

b. 빅 스크림 클럽 (Big Scream 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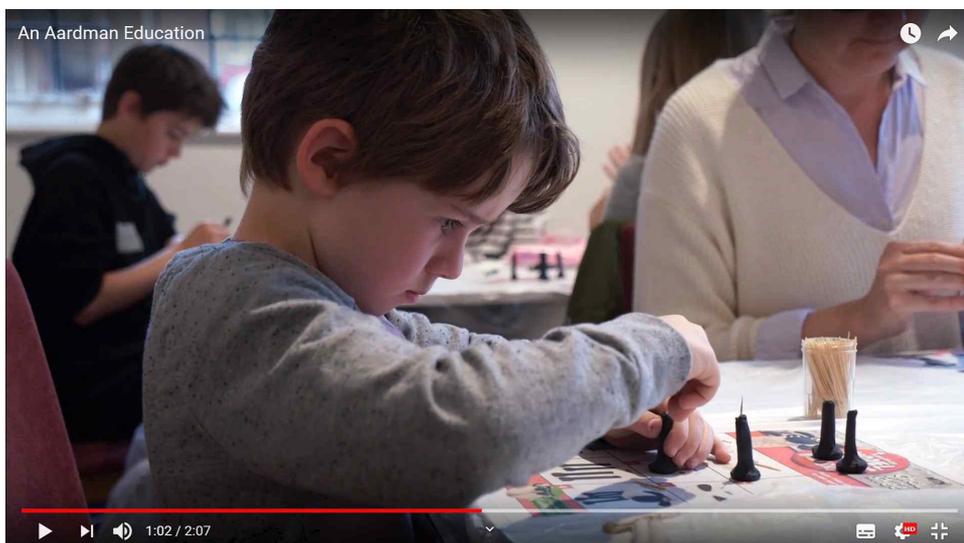
1살 이하의 아이들이 있는 부모와 보호자(guardians)들을 위한 클럽이다. 멤버십은 무료이며 아기의 첫 번째 생일까지 유효하다. 티켓의 가격은 £8.50 (픽처하우스 멤버는 £6.50)이며, 아이들은 무료이다. 아이들을 동반한 고객만 입장할 수 있는 스크리닝이다.

c. 토들러 타임 (Toddler Time)

유치원생 아이들과 부모님, 보호자들을 위한 스크리닝이다. 티켓의 가격은 £3.00이며 동반 어른은 무료이다. 어른을 동반하지 않은 유아는 입장할 수 없다.

d. 키즈 클럽 (Kids' Club)

3살부터 12살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클럽이다. 아이들과 동반 어른들의 티켓 가격은 각각 £2.50이다. 아이들을 위한 워크샵 및 세션을 진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월레스와 그로밋', '치킨런' 등 클레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제작사 아드만 스튜디오의 교육 세션이 진행된다. 보호자와 함께 아이들이 각자만의 클레이를 만들어 스톱모션을 만들어 보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한다.



키즈클럽 아드만 교육 프로그램 'An Aardman Education' ©Hackney Picturehouse

B.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

a. 중장년층 교육 프로그램 Education activities

60세 이상의 은퇴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영화, 배우에 관한 대화와 토론을 나누는 즐겁고 가벼운 장으로, 멤버십의 가격은 5파운드이다.

b. 학교 협업 공교육 프로그램

평일 아침에 진행되는 학교 스크리닝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장애 아동에 관한 영화('Wonder')를 상영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이다. 7월에는 각 학년들에게 몇 달 전의 최근 개봉한 영화를 상영한다.

11월은 영화제의 달로, 학교가 요금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영화관에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를 상영해 약 5,000명의 학생들이 보는 등의 방식이다. 또는 작가와 함께 하는 필름 세션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학생들과 유명한 그림책 작가이자 '발레하는 호랑이'의 저자인 파비 산티아고와의 필름 세션이 있었다.

4.3) 홍보 및 재정 전략

가. 예산 및 재원

픽처하우스는 영화관 체인으로 상업적 기업이기 때문에 치매 친화 스크리닝 프로그램이 유료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는 프로그램의 티, 커피, 비스킷 등을 포함한 최소의 금액이다. 초기 운영은 적자가 발생했고, 현재도 최소의 금액을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수익 역시 마케팅이나 관객 확장에 쓰여 제로나 다름이 없다.

스폰서십 또는 파트너십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역 단체, 필름 매거진으로부터 재원을 얻기도 한다. Dementia Action Week 등 다양한 치매 관련 행사 등에 게스트로 참여해 투자와 홍보의 기회를 얻고 재원을 획득하기도 한다.



Hackney Picturehouse 라운지 천장에 새겨진 후원자 명단

캠페인이나 홍보에 할당된 예산이 따로 없다. 대신 영국의 Picturehouse 각각의 26개 지점은 마케팅 팀이 있다. Dementia, Autism friendly screening 등 최근의 이벤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오프라인의 포스터, twitter, facebook 등 온라인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를 활용해 소개한다. 소비자의 e-mailing list를 구축해 email letter를 보낸다.

나. 재정 전략

A. 후원자 리워드

후원한 기부자들 한정 그들의 이름을 영화관 라운지 천장에 새긴다.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이다. 아트워크, 엽서, 벽에 후원자 명단을 새기고 프린트한다.

B. 스폰서십

알콜 브랜드 기업과 협업을 맺어 '술과 함께하는 상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각 기업의 특성을 적절히 조합한 아이템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큰 금액의 재원을 획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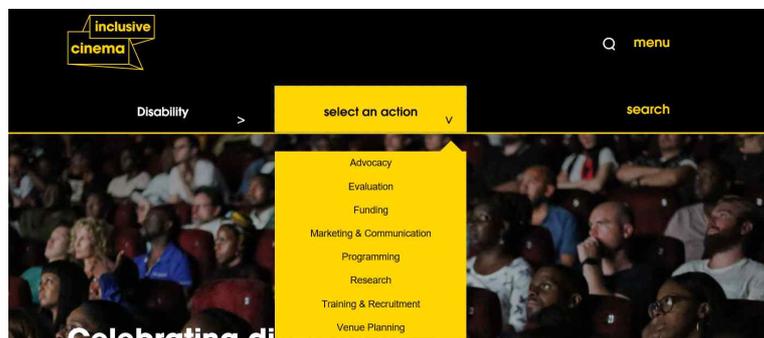
5) Film Hub North

5.1) 기관소개

본 팀이 방문한 HOME은 영국 북부 맨체스터에 위치한 유일한 독립 영화 극장으로 영국 내 다른 영화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BFI FAN(Film Audience Network)에 소속되어 있었다. BFI는 영국 전역의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영화’라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 FAN이라는 일종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기관 간의 상호 연결성과 교류를 활성화시켰다. 하지만 영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도인 런던에 BFI의 본사를 포함한 문화 시설들이 편중되어 있고 이는 수도권 밖의 거주민들이 평등하게 영화를 향유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BFI는 7개의 Hub를 세웠다. 그 중의 하나가 HOME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Alison Kennedy가 일하고 있는 Film Hub North이고, 이 외에도 Film Hub Wales, Film Hub South East, Film Hub Ni, Film Hub North West Central, Film Hub Scotland, Film Hub Midlands 6개의 Hub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 지역의 영화 문화를 책임지고 있다.

Film Hub는 각 지역의 영화 문화를 발전시킬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은 아니다. 예를 들면 Film Hub North의 경우, HOME을 포함한 여러 작은 영화 기관들에 관계자를 배치하여 그 기관의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개선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프로젝트에 아트 갤러리, 독립 영화관, 극장 등 적합한 기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있고, 어떤 영화를 상영할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하다. 두 번째로 다양한 관객층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러 단/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BFI와 Film Hub의 주요 의제는 어린 관객층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들은 미래의 관객 또는 영화계 종사자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타겟층으로서 할인된 가격으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평등하게 포함하는 ‘Inclusivity’ 또한 가장 중요한 장기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다. 흑인, 아시안, 장애인, 성소수자, 이민자 및 소수민족 등 그들을 위한 영화의 장을 마련하고 영화적 경험을 제공하여 관객의 질적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큐레이터를 초청하여 Q&A행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고 싶은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들이 정기적으로 영화관을 찾도록 하고 있다.

5.2) Film Hub Wales의 Inclusive Cinema



Inclusive Cinema 홈페이지 화면 ©Inclusive Cinema

Film Hub Wales의 경우 다양하게 분류된 카테고리를 따라 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Inclusive Cinema를 운영 중이다. 카테고리는 총 15개며 다음과 같다(표 2 참고).

표 2) Inclusive Cinema 프로그램 대상 카테고리

자폐증	민족	지역 사회
간병인	성소수자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저소득층	자원봉사자
치매	정신 질환	여성
장애	이민자	어린이

신청자가 본인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와 참여할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나열된다 이는 웨일즈 지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Hub의 관계자들이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가지며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와 진행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Inclusive Cinema에 게시된 웨일즈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본 팀의 탐사 목적에 부합하는 카테고리의 검색 결과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명 뒤 괄호는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가. 지역사회

A. 공동체 상영

a. Wychavon Rural Cinema Toolkit (Wychavon)

Wychavon Rural Cinema Toolkit은 Wychavon 의회가 배포한 공동체 상영의 지침서이다. 이 문서는 공동체 상영 시행 모델 · 면허 · 영화 수급 · 마케팅 · 프로그래밍 · 다른 성공 요인 · 필요한 장비 등 공동체 상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b. Colinsburgh Community Cinema (Colinsburgh)

Colinsburgh Community Cinema는 스코틀랜드의 Colinsburgh 마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공동체 조직으로, 총 네 명의 운영자가 공동체 상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c. Bringing Film to the Westerly Edge (Isle of Tiree)

d. Derbyshire Film (Derbyshire)

B. 지역 영화 축제

a. West Side Cinema (Orkney)

West Side Cinema는 Orkney Islands Council의 지원을 받아 열리는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 축제이다.

C. 문화 시설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a. Off Y Grid

Film Hub Wales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고립된 지역 사회를 위해 보다 창조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영국의 독립영화와 국제영화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Galeri, Pontio, Theatr Ardudwy, CELLB 등 북부 웨일즈 전역의 문화 시설과 협력했다. 이 프로젝트로 Gwynedd 지역 주민에게 새롭고 전문적인 영화 경험을 선사할 수 있었다.

나. 장애 및 신경 질환

A. 치매 및 자폐증 친화 상영 프로그램

a. Matinee (Derbyshire)

b. Relaxed screening

B. Wicked Cinema

학생 수가 약 120명인 Tir Morfa 특수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Rhyl Little 극장에서 상영이 이루어진다. 특히 간병인을 동반한 휠체어를 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영을 하기 때문에 메인 스크린과 더불어 휴식 공간에도 스크린을 설치해 영화를 이어서 관람할 수 있도록 동시 상영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극장은 총 22개의 휠체어와 간병인을 동반할 수 있는 규모이며 에어컨 또한 동반 가능하다. 학교 측에서 지불해야 할 프로그램 비용은 상영 한번에 340 파운드이다.

5.3) Film Hub North의 HOME

본 팀이 탐사한 Film Hub North의 담당 기관 중 하나인 HOME은 비영리 단체와 교육 자선 단체로 등록된 Great Manchester Arts Centre의 상표명을 가지며, 맨체스터 시의회, 영국 예술 위원회, National Lottery로부터 투자 받은 BFI, AGMA(Association of Greater Manchester Authorities), Europa Cinemas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그 중 National Lottery는 복권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각종 예술, 스포츠, 문화유산, 자선사업, 건강, 교육, 환경



맨체스터에 위치한 HOME ©Paul Karalius

부문 프로젝트에 기부하고 있으며 BFI의 예산 또한 National Lottery의 지원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원받은 예산으로 시행한 프로그램의 성과는 관객 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거쳐 BFI에 보고된다. 프로그램 후 참가자는 익명으로 구글폼으로 설문 조사에 참여하는데, 이 때 관객의 정보에 대한 질문은 성별, 나이 외에 거주지, 이주민 여부, 장애 여부, 성적 지향성까지도 다룬다. 참가자가 굳이 답변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대비하여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표시하는 선택지도 마련해놓았다. 이들의 개인 정보는 주요 관객층이었던 특정 인종과 나이대를 벗어나 질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관객들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여주는 평가 지표가 된다. 만족도에 대한 질문 목록도 상당히 구체적이데, 이주민이거나 장애인일 경우에 질문 목록이 더욱 세분화되어 있다. HOME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본 팀의 탐사주제와 부합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았다.

가. 어린이/청소년 교육

A. INTO LANGUAGE

‘INTO LANGUAGE’란 청소년이 외국어를 배우도록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이다. 영화와 매체, 드라마, 극장 이벤트 등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14살부터 19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교와 중·

고등학교가 협력하여 기획하는데, 영국 북부 지역의 경우 Manchester Metropolitan 대학, Manchester 대학, Central Lancashire 대학, Liverpool 대학과 협력을 맺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활동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현재 다루고 있는 언어는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 아랍어이며 학년에 따른 학습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 참고).



INTO LANGUAGE 프로젝트 로고
©HOME

표 3) INTO LANGUAGE 프로그램 학년별 학습활동

학년	학습활동
Year 8	Language Enrichment events
Year 9&10	Film and Culture events
Year 12&13, GCSE, A Level	Essay Writing for Film

학기 중에 주어지는 1~2주간의 단기 방학 중 교사를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세션도 진행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는 HOME의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고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프로그램에 의해 창출된 모든 수입은 진행될 행사 비용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사용된다.



Spanish AS Study Day: Sergio and Sergei

Study Session Tue 22 Jan 2019

This study day will address the themes of family, friendship, multilingual life, education, and include some contextual information...

HOME 웹사이트 중 예시 1에 관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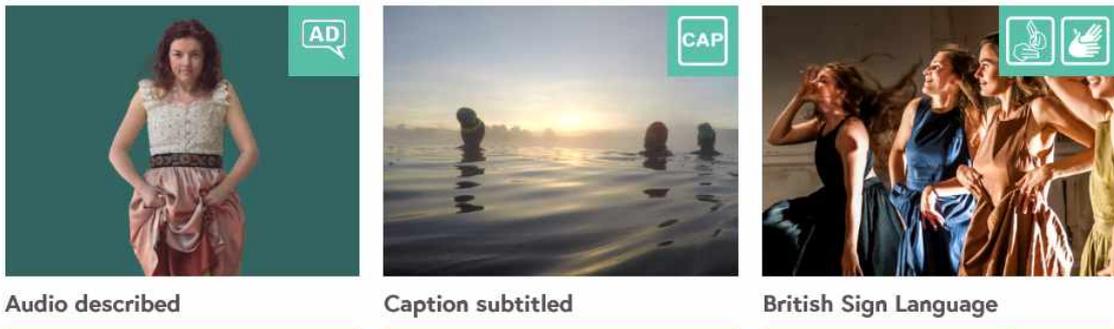
예시 1) 다음은 2019년 1월 22일 진행된 스페인어 프로그램 'Spanish AS Study Day'으로, 'Sergio and Sergei'라는 스페인 영화를 관람하며 학생들은 가족과 우정, 여러 언어를 쓰는 삶, 교육에 대해 고찰해본다. 이 영화를 통해 중요한 단어들을 익히는 것과 더불어 쿠바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과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게 된다. 상영은 캐릭터 연구, 영화 장르 분석, 주제에 대한 토의를 기반으로 한 학습 활동 이후에 이루어지며 현대 쿠바 영화의 간략한 개요 또한 다루고 있다.

B. Parent and Baby Screening

대한민국에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영화관을 방문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아이를 동반한 부모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바쁘고, 아이가 울까봐 영화에 집중하기도 어렵다. 영화 관람에 방해가 된다면 그들에게 보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문화생활과는 단절된 삶을 살게 된다. 이들을 위해 영국의 몇몇 영화 기관에서는 12개월 이하 아이의 부모, 조부모 혹은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동반하여 영화를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상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HOME에서도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티켓 가격은 일반 성인 영화표 가격과 동일하며 동반하는 아이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는다. 상영작은 전체 관람가로 HOME의 영화 프로그램 상영작들 중에서 선정된다. 최신 영화, 영화

제 상영작 또는 스페인/라틴/미국 등 해외 영화 등을 포함해 최대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고자 한다. 아이와 동반자 모두에게 편안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량은 일반 상영관에 비해 낮게, 조명 또한 상대적으로 밝게 유지한다.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영화 전 광고나 트레일러 일체 없이 시작시간에 맞춰 영화가 바로 상영된다.

나. 장애 친화 프로그램



HOME 웹사이트 중 장애 친화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 ©HOME

A. Audio Description (AD, 화면해설)

화면 해설이란 화면 또는 무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영화관에 구비된 헤드셋을 통해 들을 수 있다. 헤드셋은 대사와 간단한 행동 묘사를 담은 해설과 이와 더불어 효과음까지 포함된 해설 두 가지 채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들도록 되어 있는데, 라디오와 같은 원리다. 채널은 관객이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영화 중간에도 변경 가능하다. 예약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나 전화로도 예약 가능하며, 매표소에서 당일 대여 또한 가능하다. 화면 해설을 제공하는 워너브라더스를 포함한 특정 배급사들의 영화를 상영할 경우, HOME에서는 그 영화의 모든 상영에 화면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 Caption Subtitle (자막)

HOME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대사뿐 아니라 배경음악, 효과음에 대한 설명까지 담은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막은 극장 안 LED 스크린 또는 무대 한 쪽에 표시되기 때문에 자막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의 경우 예약적으로 지정해놓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막 서비스 역시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예약하거나, 매표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 서비스 또한 자막을 제공한 배급사의 영화에 한정되며, 매주 목요일 초저녁에는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화들만 상영하고 있다.

C. British Sign Language (수어 통역)

극장에 방문한 난청 환자들을 위해 구비된 휴대용 청각 감응 장치들은 미리 예약하거나, 매표소에서 신청 후 대여 가능하다. HOME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들은 수어로 통역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오로지 수어로만 진행되는 행사도 있다. 모든 메인 갤러리 전시는 수어 통역을 동반한다. 통역가가 무대 위 또는 그 앞에서 통역을 진행하는 극장 퍼포먼스 프로그램도 있는데, 무대에 가까운 가장 잘 보이는 자리는 예약적으로 지정되어 난청을 가진 관객들에게 우선 배정된다.

D. Relaxed Screening

자폐증 혹은 치매를 가진 관객들을 위해 마련된 친화 상영 프로그램은 영화 관람 중 거부감이나 공포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이들이 가족 혹은 동반자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

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특별히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 달에 한번 진행하고,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명은 완전히 끄지 않고, 음량 또한 일반 상영관에 비해 낮게 한다, 영화 상영 전 광고나 트레일러는 일체 없고 관객은 상영 중 상영관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나가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를 대비하여 상영관 밖에 휴식 공간도 마련해 놓고 있다.

다.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A. Pay as you feel

HOME은 프로그램 혹은 영화 티켓 가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을 위해 부담할 수 있는 만큼만 비용을 내도록 하는 이벤트를 종종 진행해왔다. 2019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개최되는 'A Trans Creative Arts Festival'의 프로그램 중 일부는 정해진 참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내고 싶은 만큼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Stand by Your Trans

A heady cocktail of curated live performance and open-mic by talented trans people and their allies, designed to lift the spirits of the trans community! Music, comedy, poetry and the unexpected combine to sign off Trans Vegas 2019 with some creative love for our transgender communities. Dust off that performance piece and join in!

Wednesday 3 July, 7.30pm
The Front Room at Royal Exchange Theatre
Old Bank St, Manchester
M2 7PE

Tickets: Pay as you feel on the night

HOME CINEMA THEATRE ART EVENTS
WHAT'S ON VISIT ABOUT

Pay What You Can/ I, Daniel Blake
Last shown Thu 24 Nov 2016 at 20.40

Directed by Ken Loach

Film information Languages

A Trans Creative Arts Festival 프로그램 팸플릿 ©HOME

B. Pay what you can

위의 Pay-as-you-feel 상영 프로그램에서는 부담할 수 있는 만큼을 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었다면, Pay-what-you-can 상영 프로그램에서는 돈이 아니더라도 낼 수 있는 것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장 시 검표 대신 낼 수 있는 것을 준비된 상자에 넣고 입장하면 된다. 영화 '나, 다이엘 블레이크'의 켄 로치 감독과 배급사 One UK엔터테인먼트의 협력으로 진행된 이벤트로 시작되었다. 개봉 예정작인 'Paterloo'는 2019년 8월 18일 해당 이벤트와 함께 Q&A를 진행할 예정이다.

6) SFI (Swedish Film Institute)

6.1) 기관소개

스웨덴은 최초로 영화계 전반에 벡델 테스트를 도입한 국가로 영화가 시작하기 전 벡델 테스트 등급이 스크린에 표시된다. 벡델 테스트란 남성 중심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 계량하기 위해 고안한 성평등 테스트로 기준은 다음과 같다.⁵⁾

- ▷ 이름을 가진 여자가 두 명 이상 나올 것
- ▷ 이들이 서로 대화할 것
- ▷ 대화 내용에 남자와 관련된 것이 아닌 다른 내용이 있을 것.

이렇게 젠더 감수성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웨덴 영화 기관들을 조사해 보던 중에 SFI를 알게 되었고 탐사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기관의 휴가 일정과 탐사 일정이 맞지 않아 방문하지 못하게 되어 Skype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SFI는 1963년 스웨덴 영화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영화 협회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단체이다. 처음에는 시네마테크로서 영화 아카이빙을 주요 업무로 삼았지만 SFI는 자체적으로 영화 제작에도 참여하여 시나리오 선별과 기획, 프로듀싱 및 배급 단계에도 참여할 만큼 스웨덴 영화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는 Film Bill(영화 법안)과 문화부 보조금 지출에 관



스톡홀름에 위치한 SFI ©Vargklo

한 연례 문서를 통해 그 내용과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기관의 운영 자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오로지 국가 정부 자금으로만 조달되고 있다. 매해 정부로부터 678억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영화 제작/배급, 영화 축제, 영화 리터러시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고, 아카이브, 스웨덴 영화의 디지털화에도 쓰이고 있다. 이전에는 다른 상업 영화 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부의 지원금으로만 기관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기관의 운영 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운영 위원 또한 정부가 임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SFI의 운영을 책임질 CEO를 임명한다. 현재 SFI의 CEO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놓은 것은 성평등을 비롯한 ‘평등’으로 평등한 영화 문화 향유 기회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기관의 부서는 크게 총 다섯 가지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다.

- Film Funding (영화 제작, 기획 및 배급에 관한 예산 투자)
- Film and Society (지역 사회 영화 문화 개선 및 청소년 교육 자료 제작, Film House & 시네마테크 운영)
- Film Heritage (영화 유산 아카이빙 및 도서관 운영)
- Communications & PR (통계 업무, 마케팅 및 홍보)
- Administration (프로그래밍 및 홈페이지 관리)

5) “벡델테스트”, Naver, last modified April 30, 2019, accessed July 17, 201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34496&cid=43667&categoryId=43667>

현재 SFI의 CEO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의제는 ‘평등’이다. 따라서 Film and Society 부서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관객의 질적 확대, 즉 모두가 동등하게 영화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SFI는 어느 기관들처럼 통계 부서에서 매년 프로젝트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그 중 평등 지수에 대한 카테고리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들이 ‘평등’을 얼마나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평등을 얼마나 실현했는지 수치와 통계를 통해 그 성과를 계량하기 위해서, SFI는 모든 경제적 자금의 운용을 디지털 방식으로 문서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어떤 대상에게 혹은 어떠한 업무에 편중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출신 배경 또는 성별, 나이 등과 같은 프로그램 참가자에 관한 데이터 또한 같은 방식으로 수록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이후 관객다양성의 확대의 분석 및 평가 지표로 사용된다. 이러한 통계 업무는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SFI가 수집한 디지털 데이터와 외부 기관에 부탁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본 팀의 탐사 주제인 ‘소외 계층의 영화 문화 향유 증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Film and Society 부서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다.

6.2) 프로그램

가. 교육 프로그램

A. 청소년 및 아동 대상 필름 리터러시 교육 자료 제작

SFI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공교육 커리큘럼에 넣는 것을 목표로 교사를 위한 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Cinema School에서 진행하고, SFI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활동은 없다. 즉, 영화 리터러시 프로젝트에서 SFI의 역할은 경제적 지원과 학습자료(다른 영화, 세미나, 좋은 예시 등) 제공을 통해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Cinema school은 학생들이 학창시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개념이다. 교사는 영화 그 자체와 영화언어에 대한 토론을 준비하고 진행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비판적, 창의적인 능력을 향상 시킨다. SFI와 협력을 맺은 지역 영화 기관들은 자문,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름 리터러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B. Filmrummet (The Film Room)

The Film Room은 SFI가 진행하고 있는 세미나, 워크숍을 말하며 영화, 영화 정책 및 영화 예술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소통의 장이다. 스톡홀름에서는 SFI 기관 내의 Film House에서 진행되고 때때로 스웨덴의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된다.

C. 플랫폼 www.filmricket.com

SFI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만든 플랫폼으로 영화 제작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교사들이 필름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수업에 참고할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목적에 사용되기도 한다.

나. 지역 사회

스웨덴의 문화 정책은 ① 지역 공동체, ② 지역, ③ 국가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며, 4년마다 진행되는 선거 또한 단계별로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스웨덴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은 도시화, 낮은 세금 수입, 고령화 사회로 인한 비용 증가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SFI는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관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A. 파트너십

SFI는 FIAF(국제 필름 아카이브 연방)에 속해 있어 북유럽 영화 기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 내에서는 전국에 19개의 영화 기관과 협력하고 있는데, 이들과 직접적인 교류와 함께 필름 리터러시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약 37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사회의 작은 영화관의 경우 SFI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영화관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술 및 장비 개선, 관객과의 소통 장소 마련, 마케팅, 상영작의 다양성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B. 세미나 촬영 및 출판

Filmrummet 세미나 및 워크숍은 촬영 및 출판되어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SFI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 VoiceVision, MovieTalk 어플 제작 투자

시각장애인들과 난독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자막을 읽어주는 서비스와 영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묘사하는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로써 장애인들도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영관에 가지 않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2. 국내와 국외 기관 비교

2.1) 지역격차

현대 사회 속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의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점들은 한국의 지역 사회가 가지는 문제점들과 꽤나 비슷했다. 먼저 교통 시설을 비롯하여 문화 시설 등 모든 것이 런던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확연히 적다. 지하철 또는 기차역과 먼 곳은 영화관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고립된 지역에서 진행되는 복지 상영 프로그램의 경우 마을의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 선입견을 가지는 등 폐쇄적인 분위기로 진행이 어려운 점도 있다. 또한 상업 영화가 아닌 다양한 영화들을 관람할 수 있는 독립 영화관은 수도권에는 많은데 비해 맨체스터의 경우 HOME이 유일했다. 감독 혹은 배우와 만날 수 있는 문화 행사도 대부분 마찬가지로 런던,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 사회의 독립 영화관들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낙후된 시설이 많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고, 건물을 짓는 것도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사업을 유지하려면 각종 상영 장비를 구비하는 것 외에 식음료를 판매할 식당 운영, 낙후된 시설 보수 등에 여러 부가적인 비용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영화표 가격은 10~13파운드(한화 약 14000원~19000원)로 비싼 편인데 최근에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영화관의 입지가 떨어져 관객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다. 게다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운영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따라서 BFI는 런던에 편중되어 소비되는 자금을 지역 사회로 분산시켜 이러한 문제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7개의 Hub을 설립했다. Film Hub은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는 형태보다는 BFI FAN에 소속된 영화 기관에서 직원이 근무하며 해당 기관의 프로그램의 진행이 원활하도록 돕고 개선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국의 대부분의 영화 기관은 BFI FAN에 소속되어 상호 교류와 프로젝트의 연결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 팀이 탐사한 Film Hub North의 경우

맨체스터에 자리한 HOME 이라는 독립 영화관에서 영화계 유명인사 초청 및 영화 축제 개최, 아동·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여러 장애 친화 상영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30년 전부터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파리에 자리한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와 Cinema difference의 프로그램에 대해 이미 지역 사회 기관들은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수도권 기관들이 굳이 프로그램을 제안하지 않아도, 지역 자치 단체들이 먼저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수도권 기관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하는 식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최근 들어 소외 계층의 영화 문화 향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리어프리 위원회의 <찾아가는 영화관>, 영화네트워크부산의 정기 세미나와 한국영상자료원의 <찾아가는 영화관> 등의 외국의 선진 사례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다양한 관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영국 영화 기관의 경우 상위기관과 그 밑의 산하 기관 사이에 매개체가 되는 Hub을 가지는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프랑스의 경우 지역 기관에서 먼저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네트워크를 넓혀가지만 한국의 경우 네트워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주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의 네트워크까지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공기관과 지역기관 그리고 민간까지 아우르는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Hub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2) 대상별 교육

가. 국내기관

A.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은 설립 초반에는 전문적인 영화 기관으로서 영화 자체의 연구와 제작자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문화 복지회 확산 역시 중요한 과제를 밝히며, 본 탐사가 궁극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4개 계층 (① 수도권 외 지역 ② 아동, 시니어 등 연령적합성 ③ 저소득층 ④ 장애인) 모두의 영상문화 향유와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영화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그 중 연령층별로 대상을 지정한 교육 활동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진로체험, 영화박물관과 전시 연계 큐레이팅 프로그램, 한편의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아카데미(토요영화학교) 등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펼쳐오고 있다. 영유아 대상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학 기간동안 진행되는 제작과 창의체험활동 위주이다. 2019년 여름방학에는 무성영화를 중심으로 연기, 라이브 더빙 등을 입혀 공연을 완성하는 ‘무성영화 번사공연 제작기’를 시행하였으며,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시각놀이인 ‘빛+그림자 극장 놀이’ 또한 진행하였다.

또한 만 60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도 영화 제작 및 비평 토론 프로그램인 ‘시니어 영화 토론 클럽’을 기획하였으며 2019년 하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시니어 영화 클럽’은 시간, 고령화 사회, 가족 등 장년층이 직면한 이슈를 다루는 토론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또한 이는 장년층에게도 해외 우수/단편 독립 영화들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며, 현대 사회 속에서 해체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장년층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B. 아트하우스 모모

이화여자대학교에 위치한 독립예술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이하 모모)는 영화사 백두대간에 서 2008년 대한민국 최초로 대학 내 일반인을 위해 개관한 상설영화관으로, 한국 영상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⁶⁾

모모에서는 관객의 계층과 관계없이 다양한 영화 관람 기회의 접근성을 높이며 영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 선정은 모모 운영진과 모모의 시민 활동가인 큐레이터들 중 영화학교 팀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무계극장 팀원 중 하나가 이 영화학교의 팀장이기에, 본 팀은 모모의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매달 정기적인 팀회의를 통해, 큐레이터들로 구성된 영화학교 팀원들은 강좌시작일로부터 3~4개월 전부터 각자 준비해 온 정규 혹은 심화 프로그램 기획안을 제출한 후 여러 날의 토의를 거친다. 이 기획회의에는 강의의 주제뿐만 아니라 누구를 강사로 섭외할 지, 강의명은 무엇으로 할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주제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운영진의 컨펌을 받으면,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6~8강 정도로 정리한 후 강사 섭외를 시작한다. 강좌시작 약 1개월 전부터 모모 홈페이지, SNS채널, 그리고 모모 뉴스레터 등을 통해 강의를 홍보하고 수강신청을 받는다. 신청비는 강좌당 2만원이지만 모든 강좌를 미리 온라인으로 등록한 경우 할인이 있으며, 학생의 경우 학생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1만원의 할인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타겟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사나 영화이론 등에 대한 심도있는 수업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연령대는 20대부터 5~60대 시니어층까지 다양한 편이며, 현재는 이화인문과학원과 연계하여 진행중에 있다.

영화학교 이외에도 모모 큐레이터는 영화제와 관련한 강좌 프로그램 구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노동 인권 영화제, 이주민 영화제, 2019년부터 시작한 에피파니 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의 기획과 진행의 주축이 되었으며, 특히 매년 큐레이터들이 직접 기획하는 큐레이터 영화제는 모모에서 이러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주최 기관이나 큐레이터들이 프로그래밍한 강좌나 GV(관객과의 만남) 등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단순히 영화를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탐구의 대상으로까지 확장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모에서 진행되는 위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들의 경우 시민 큐레이터들이 운영과 기획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타 영화관이나 영상자료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극장과 관객의 매개로써 존재하는 큐레이터들이 이 둘의 상황을 모두 인식하고 관객들의 니즈를 충족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진보적인 형태의 시민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청소년 이상의 모든 관객층을 아우르는 영화학교 프로그램은 높은 사전 신청율을 보일 만큼 많은 관객들이 즐겨 찾는다. 강좌 신청 가능한 연령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관을 주로 찾는 관객이 청년, 중, 장년층이기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기획된 경우가 없다. 또한 영화학교 강의를 연중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한계이다. 정규 영화학교는 보통 10~11월에 시작하여 6~8주 내로 끝나며, 특강과 심화 프로그램은 방학 동안 단기로 진행된다.

나. 국외기관

6) 아트하우스 모모 홈페이지 극장 - 운영주체 카테고리, 영화사 백두대간, http://www.arthousemomo.co.kr/pages/about_company.php

A. BFI

BFI는 한국영상자료원의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 비교할 만하다.

우선, BFI는 특히 영유아의 교육 프로그램이 세분화 되어있는 기관이다. BFI Education은 ① 영유아 및 가족 대상 ② 청소년 대상 ③ 전 연령 대상 (시니어 위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교육과의 연계 프로그램인 'Student Study Days'는 영유아 중에서도 다시 연령대별로 나누었다. Primary pupil(5-11세)/Secondary pupil(중등학교: 초등학교와 대학 사이의 학교)/A-Level(영국 연방 대학입학 자격: 대한민국 고3~대1), 총 3가지 단계로 나뉘어 있다. 다시 Secondary 과정은 KS3(11-14세, Secondary 학교 입학 후 3년간을 지칭함), GCSE, A-LEVEL 등 연령대별 수업으로 진행한다. 단순히 연령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 교육 내용 또한 세분화하여 프로그래밍하였다. Primary 과정 학생에게는 영화 매체를 활용한 언어 교육 위주로, Secondary 과정 학생에게는 중등 교육 세부 전공인 'Film & Media Studies'와 연계된 교육 위주로 시행한다.

또한 BFI는 공교육과의 연계 측면에서 교사 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무료 배포한다. 영화를 공교육 교실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워크숍, 연간 회의,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하는데, 이를 비롯한 BFI의 공교육 연계 과정은 'Film & Media Studies' 세부 전공의 발전과 참여 학생 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BFI는 국제 간, 국내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또한 시행하고 있다. 타자에 대한 공감을 목적으로 하는 'Film: a language without borders'와 폭넓은 예술적 경험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The Cultural Campus'가 그 예다.

BFI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발견한 세 가지 특징인 연령별 세분화된 프로그래밍, 공교육과의 연계, 격차 해소 프로그램은 한국영상자료원에도 적용할만한 요소로 보인다. 한국영상자료원의 프로그램의 대상은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공교육과의 연계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교육과의 연계의 경우, 한국의 공교육 과정에 영화와 관련된 세부 전공이 희박하다는 불가피한 배경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BFI가 영국의 영화협회로서 공교육과 함께 발전해 온 역사를 보았을 때, 한국의 주요 영화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상자료원의 긴밀한 협업을 배경으로 위와 같이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시행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경유하여 국내 간 격차를 해소하는 'The Cultural Campus'는 공교육 내 영화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간 영화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모델일 것이다.

B. 시네마떼끄 프랑세즈

시네마떼끄 프랑세즈의 교육 프로그램은 그 종류의 다양성과 프로그램의 규모를 고려해볼 때, 프랑스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관 내 교육 담당자가 기획하고 편성하기에 영화교육에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은 입문 아뜰리에, 이론 아뜰리에, 실습 아뜰리에로 나누어 진행된다. 입문 아뜰리에에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영화 수업에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론 아뜰리에와 실습 아뜰리에에는 초등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영화 추출, 이론서적 등의 수업자료는 모두 시네마떼끄 프랑세즈에서 마련된다. 또한 기관 7층에 교육 목적으로 운영되는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영화 촬영에 필요한 장비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시네마떼끄 프랑세즈의 전반적인 개편과 함께 교육 시설들을 확장할 계획중에 있다고 하니,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은 시네마떼끄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뜰리에 수업은 단순히 기관 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 하다. 우선 아뜰리에 프로그램은 지역의 다른 영화관과 교육센터에서도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전부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영상자료원에서만 열린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시네마떼끄 프랑세즈의 아뜰리에 제도는 한국에도 도입할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 다시 말해,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영화교육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 이외 지역과의 교육 프로그램 공유가 절실하다.

이뿐만 아니라 시네마떼끄 프랑세즈는 공교육에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기관이 위치해 있는 파리와 일드프랑스 지역의 몇몇 학교와 연계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영화 교육을 편성하고 학생들이 시네마떼끄를 자주 찾도록 장려하는 등, 영화 박물관과 미디어떼끄가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영상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내에서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시네마떼끄의 교육 프로그래머들은 유럽 국가 및 세계 각지의 영화인들과 함께 국제적인 프로그램 또한 기획한다. 이들에게 영화와 영상예술이란 보편적인 향유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인의, 나아가서 세계인류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듯 하다. 매년 기존의 프로그램을 보완해가며 꾸준히 운영하는 한편 수많은 프로젝트를 새로이 시도한다는 점에서, 학기당 단계별로 1개 정도씩, 총 3~4개의 프로그램 위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 영화교육은 여전히 많은 발전과제들을 안고 있다.

2.3) 장애친화

가. 국내기관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국내 장애인 미디어 접근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배리어프리영화의 제작, 상영, 배급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의 영화 향유의 질적 발전에 기여한다. 배리어프리영화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보다 편하고 쉽게 영화를 향유하도록 한글자막이나 음성설명을 넣는다. 자막은 효과음, 한숨소리, 영화 중 깔리고 있는 배경음악의 느낌까지 전부 표시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대사 중간중간 장면과 상황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설명하는 전문 성우의 내레이션이 삽입된다. 오디오 설명(AD; Audio Description)이다.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각개 지역의 사회문화복지관, 평생학습관, 문화회관, 도서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청소년회관, 장애인인권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 한국영상자료원 등 다양한 장소와 영화제에서 매달 배리어프리영화를 정기적으로 무료 상영한다. 2018년 11월 42회, 12월 30회, 2019년 5월 10회, 6월 9회, 7월 4회 이루어졌다. 또한 매년 배리어프리영화제를 개최, 2019년 올해 9번째 배리어프리영화제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국내에서 최초로 ‘치매친화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천에서 시작, 2019년 대한극장과 무주영화제에서 선보였다. 치매 연구자들이 모여 한국형 ‘치매친화 영화상영’ 매뉴얼을 만들었다. 상영 환경을 밝게 하고, 상영 앞뒤로 치매에 도움되는 노래 부르는 시간을 갖는 등 조정된 프로그램이다.

국내 멀티플렉스 3사(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서도 배리어프리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한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나. 국외기관

영국의 픽처하우스는 26개 지점에서 치매친화 상영 (Dementia Friendly Screening)을 1달에 1번씩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음량은 줄이고 조도를 줄이며,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티타임, 영화 후 교육 세션을 진행한다. 또한 자폐 친화 상영 (Autism Friendly Screening)이 있다. 프랑스 파리의 Cinema difference는 장애 친화 상영을 진행한다. 자막과 음성해설이 제공되는 헤드셋 등의 기술 장비의 지원이 있다. 영국의 맨체스터의 Film Hub North 기관 역시 치매친화상영(Dementia Friendly Screening)과 장애친화상영을 한다.

탐사한 영국과 프랑스 기관과의 비교를 통한 국내의 현황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① 제작·배급사의 화면(음성)해설 및 한글자막 제작 부재
- ② 영화관의 음성해설, 자막 스크린 등 기기 미제공
- ③ 영화관의 배리어프리영화의 적은 편성 횟수
- ④ 상영의 홍보 부재에 따른 이용자의 낮은 접근성

① 제작·배급사의 화면(음성)해설 및 한글자막 제작 부재

국내의 장애친화상영과 제작, 배급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사회, 장애복지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영을 소수의 단체들, 정확히는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가 거의 국내 유일하게 도맡아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2019년 4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농아인협회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시청각장애인들의 영화 관람을 지원하는 화면해설 한글자막 서비스인 ‘가치봄’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제작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도적 배급·제작사의 화면해설과 자막 제작이 필요한 현황이다.

② 영화관의 음성해설, 자막 스크린 등 기기 미제공

최근 한국 국내에서 시청각 장애인들은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을 상대로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시청각장애인의 손을 들어 “영화관들은 시청각장애인이 관람하려는 영화 중 제작업자나 배급업자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하고, 청각 장애가 있는 원고에겐 FM 보청기기도 제공하라”고 했으나 3사는 항소했다. 장비에 대한 표준화와 법안 정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일반영화에 자막과 음성해설이 더해진 배리어프리영화를 ‘개방형’으로 상영한다. 자막과 음성해설이 불필요한 비장애인 관객들에게 ‘개방형’ 상영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이는 곧 티켓 예매율의 하락으로 이어져 극장의 배리어프리영화의 편성을 어렵게 한다. 국내 배리어프리영화 상영관과 상영횟수가 적은 요인으로도 볼 수 있다.

상영관의 일반 스크린 외 자막 스크린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이나 음성해설이 제공되는 헤드셋 ‘폐쇄형’ 상영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반면 영국의 Picturhouse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상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음성해설(AD: Audio Description)을 제공하는 헤드셋과 자막 안경, 자막이 입혀진 영화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어플까지 ‘폐쇄형’ 상영의 물리적·기술적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가 들어가 탈착식 좌석까지 구비되어 있다. 맨 앞줄과 뒷줄에 휠체어 고정석을 배정해놓은 국내 영화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비이다. 장비 이용에 따른 부차적 비용은 없다.

③ 영화관의 배리어프리영화의 적은 편성 횟수

국내 멀티플렉스 3사(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서도 배리어프리영화⁷⁾(현재 ‘가치봄’ 영

7) 현재 멀티플렉스 3사에서는 ‘가치봄’ 영화를 상영하나, 보고서에서는 용어의 혼용과 그에 따른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 화면해설과 자막이 있는 영화를 ‘배리어프리영화’로 통칭하기로 하였다.

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나, 아래 표에 따르면 전국 도·시·광역시별 CGV 상영관 개수 대비 장애인영화 상영관 개수와 상영횟수는 현저히 적다 (표 4 참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영관 (30개 지점)이 있는 서울에서 장애인영화를 상영하는 지점은 2개 곳이다. 또한 상영하는 지점은 보통 1달에 1번, 많게는 3번까지(장애인영화로 개봉·제작된 복수의 영화일 경우)밖에 상영할 뿐이었다.

표 4) 전국 지역별 CGV 상영관 개수 대비 장애인영화 상영관 개수 비교

전국 지역별 CGV 상영관 개수 대비 장애인영화 상영관 개수 비교									
시/광역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	부산/울산	경상	광주/전라/제주
총 지점 개수	30	40	10	5	20	9	15	13	23
장애인영화 상영관 개수	2	5	1	3	5	1	2	4	6
장애인영화 상영관	구로(3), 왕십리(3)	북수원, 평택(2), 의정부태릉(2), 안산(2), 평촌, 구리	인천(3)	원주,강릉, 춘천명동	천안(3),대전, 청주지웰시티(2), 보령, 당진(2)	대구 현대	아시아드, 울산삼산(2)	창원더시티, 구미(2), 거제, 포항	전주효자, 광주터미널, 제주, 순천, 여수웅천(2), 목포

이러한 국내 현황과 달리 영국은 Film Hub North 공공 기관을 비롯해 상업적 사기업인 Picturehouse 영화관 체인까지 장애인영화상영, 장애인영화상영, 장애인영화상영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④ 상영의 홍보부재에 따른 이용자의 낮은 접근성

국내 멀티플렉스 3사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는 현재 장애인영화 상영을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영화 상영 정보(영화, 상영 스케줄)는 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도 상위 랭킹 정보로 뜨지 않으며, 쉽게 접근할 수 없다. 국내 점유율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멀티플렉스 영화관 이름(예: CGV)+장애인영화' 키워드의 조합으로 검색해도 다른 일반 영화와 달리 관람 가능한 정리된 형태의 영화 정보, 상영 스케줄 목록조차 뜨지 않는다. '화면해설', '가치봄(자막, 화면해설 브랜드 명칭)' 등의 여러 키워드로 검색해야 결과가 나온다. '메가박스 + 장애인영화'의 키워드 조합의 검색으로 현재 관람 가능한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 영화의 상영정보가 상위에 랭크되지 않는다. 스크롤을 내려 검색 페이지 중간에 '화면해설 영화'도 아닌 '공지'라는 제목의 글이 검색된다. 이러한 상영 정보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의 수준은 매우 낮아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현황이다.



'가치봄' 상영 포스터 ©CGV

이러한 홍보 부족과 낮은 접근성의 해결책과 발전 방안으로 영국의 2개 기관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첫째, 영국 영화 배급사 협회(Film Distributors' Association)에서는 개봉 예정의, 또는 개

봉한 영화의 영화 포맷과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음성해설 버전 등 액세스 포맷(Access Forma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FDA의 웹사이트에서 상영관과 상영 스케줄을 알 수 있다. (<https://launchingfilms.com>) 이렇듯 영국은 영화 제작 단계에서부터 배급사와 감독 및 제작사에 의해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버전의 영화 제작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한국의 제작사는 배리어프리 버전의 영화를 제작하는 것을 기피하며, 개봉 후 배리어프리영화 위원회에서 제작을 도맡아 하고 있다.

Media Info Key:

Film Formats:
 2D = Digital 2D | 3D = Digital 3D | 35mm = 35 millimeter film screening | 70mm = 70 millimeter film screening | IMAX = Large format IMAX screening | IMAX 3D | IMAX 70mm | Dolby Atmos ST | Auro |
 FL = Foreign-language title with English-language subtitles | ENG DUB = English Dubbed Voice Track

Access Formats:
 2Dsc = 2D subtitles/captions for people with hearing loss | 3Dsc = 3D subtitles/captions for people with hearing loss | AD = Audio Description for people with sight loss | Sep DCP = Separate DCP required for subtitle/audio description



The Dead Don't Die

Director: Jim Jarmusch
Starring: Bill Murray, Adam Driver, Tilda Swinton, Chloë Sevigny, Steve Buscemi, Danny Glover, Caleb Landry Jones, Rosie Perez, Iggy Pop, Sara Driver, RZA, Selena Gomez, Carol Kane and Tom Waits

Locations: 100+



UNIVERSAL
A COMCAST COMPANY

Film Formats:
2D

Access Formats:
2Dsc | AD

ACCESS FILES AVAILABLE ON RELEASE DATE

[Film Website](#) [Find Cinemas](#) [Press Office](#)

FD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상영관과 상영스케줄 ©FDA

둘째, Accessible Screenings UK (<http://accessiblescreeningsuk.co.uk/>)는 영국영화협회(UKCA)에 의해 운영되는 자막, 음성해설, 장애/자폐친화스크리닝 등 접근 가능한 포괄적 스크리닝을 검색 가능한 목록 데이터베이스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Accessible Screening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제작사의 입장에서 영화 홍보하기 위함이 Accessible Screenings UK의 목적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Location)과 스크리닝 타입(Type of Screening), 영화 이름(Search for film title) 3가지 정보를 서치 박스에 기입하면 가능한 상영관과 날짜를 검색해주는 직관적인 검색 데이터베이스이다. Accessible Screenings UK는 영국 영화관의 장애 접근성에 관련된 모든 활동과 프로그램의 정보 허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무계극장의 웹사이트 모델이 지향하는 바와 유사하다. 음성해설, 자막, 장애/자폐 친화 등 스

Search for Cinema Screening

Search for either a film, location or both

Location

Enter town or postcode...

Type of screening

Audio Described

Search for film title

Enter film name...

SEARCH

Type of Screenings



Audio Described
[Find out more >](#)



Subtitled
[Find out more >](#)



Autism Friendly
[Find out more >](#)

Accessible Screenings in UK 의 위치와 스크리닝의 타입에 따른 검색화면

Accessible Screenings in UK의 3가지 스크리닝 타입. 음성해설, 자막, 자폐친화상영이 있다.

크리닝 타입에 따른 검색이 가능하며, 거주 지역에 따른 영화관과 상영스케줄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혹은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환경과 제작 현황, 이렇게 제작된 스크리닝의 제작사의 보급과 이용자의 접근성이 모두 힘든 상황인 셈이다. 한국은 스크리닝 프로그램과 더불어 물리적 기술 및 장비의 표준·보편화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Accessible Screenings UK, 혹은 무계극장의 모델 (<https://mugyehub.wixsite.com/mugye-hub>)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동반해 수요가 존재하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2.4) 소득격차

현재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2019년 올해로 지원금은 8만원으로 늘어났지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여건이 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사용자 수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다. 문화누리카드와 제휴를 맺은 가맹점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므로 여러모로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프랑스와 영국 모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표 할인 제도가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 일반표는 13파운드(한화 약 2만원), 학생의 경우는 10파운드(한화 약 1만5천원)로 할인율이 큰 편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표 할인은 대학가 영화관에 한정되어 진행 중이며, 대학가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 값을 주고 영화표를 사야하는 실정이다.

영화 문화 정책에 있어서 '대상의 다양화'를 최우선적으로 이루고자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하나의 카테고리 분류하기보다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비용을 책정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인당 7유로 혹은 5파운드(한화 8천원 내외)로 높지 않은 편이고 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은 경우에는 학교가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BFI 필름 아카데미의 경우 기초수급자에게는 비용을 받지 않고, HOME에서는 때때로 pay-as-you-feel, pay-what-you-can 등 낼 수 있는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낼 수 있는 기부하는 식의 이벤트도 진행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5) 예산구조 및 정부와의 관계

한국 영상 자료원의 예산은 정부 지원 수입과 프로그램 수익금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익을 창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료로 상영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참가비 또한 낮은 편으로, 사실상 정부의 지원금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진다. 반면 SFI, BFI, Film Hub, HOME,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모두 공공기관이지만 정부의 예산에 부가적으로 자선단체 등 다른 기관의 경제적 지원금이 보조된다. 영국의 경우 National Lottery 측에서 복권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 예술 사업에 기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사전 조사 중 영상자료원의 박노민 부장은 관객의 성과 평가 시 질적 확대보다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분위기,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점을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에서 힘든 점으로 꼽았다. 영국은 'Inclusivity(관객의 다양성) 확대'라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 프랑스는 '예술적 국민 양성을 위한 영화 문화 발전'이라는 문화 정책에 따라 여러 기관들이 협력을 맺고 그 방향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되 매년 성과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를 할 뿐, 일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은 없었고, 다른 기관들로부터 보조금도 지원 받기 때문에 안정적

인 운영을 하고 있었다.

본 팀이 탐사한 영국의 Picturhouse는 한국의 CGV, 메가박스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예산의 일부만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 CGV, 메가박스에서도 정기적인 배리어프리 상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여 신청자 수가 많지 않아 사업 확장 및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Picturehouse에서는 기업의 자선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화관 곳곳에 포스터 부착 및 팸플릿 배포, 영화 시작 전 광고를 통한 후원 유도 등을 통해 관객들의 인식 개선과 동시에 사업 홍보를 하고 있다.

III. 결론

1. 탐사 의의 및 한계, 느낀 점

가. 탐사 의의 및 한계

본 탐사에서 무계극장 팀이 인지했던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탐사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자면, 프랑스, 영국, 스웨덴 3국은 복지로서의 영화 관련 사업을 꾸준히 해 온지 오래된 국가들이기에, 기관의 프로그램 완성도가 높고 방향성이 뚜렷하였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기관인 Cinéma différence의 설립자이자 최고책임자는 약 15년 간의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와 같은 성과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처럼 문화정책이나 제도의 성공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관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장해 왔는지를 고려한다면, 탐사 대상이었던 모든 기관은 이 점을 만족한다는 점에서 한국 영상문화 발전에의 훌륭한 비교 대상이자 성공모델이 되어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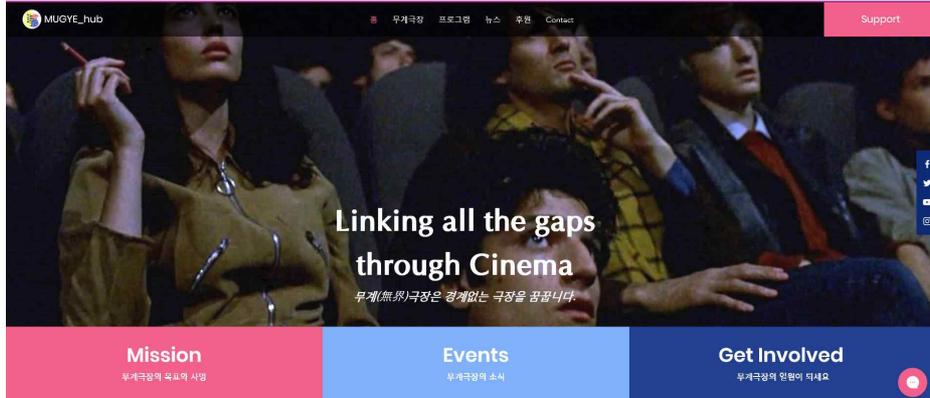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가지는 의의 외에도 방문을 통해 얻은 효과도 컸다. 무계극장 팀은 단순히 기관 관계자와의 인터뷰만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기관의 시설과 실제 체험 현장을 견학함으로써 탐사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었다. 영국 런던의 Hackney와 East Dulwich Picturehouse의 경우, 장애인 관객을 위한 Hearing loop와 헤드셋, 휠체어 이용자를 배려하는 극장의 의자 배치 등의 시설을 마련해두었다. 이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영화를 관람하는 라운지 형태의 상영관, 바와 테이블 룸이 결합되어 식사나 음료를 즐기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상영관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디자인된 극장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했기에 관찰할 수 있었던 Picturehouse만의 차별화된 시설이었다. 또한 BFI Southbank에서는 일요일 오전에 있는 'Funday' 활동에 참여한 한 영국인 아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계자가 아닌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다.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드느라 분주한 가운데 자신의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열심히 설명해주었던 아이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무계극장 팀은 BFI의 영화 교육이 아이들에게 주는 성취감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무계극장 팀이 인식했던 본 탐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탐사 대상이었던 기관들은 모두 유럽에 위치한 기관들이기에, 한국의 상황과는 다른 배경 상황에서 설립되고 발전해왔다. 특히 예산 구조의 경우, 장애사업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나 책정된 예산으로 진행중인 사업의 수준에서 이미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실정이다. 다음으로 팀원들 모두가 동의했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문화산업, 특히 영상예술을 복지로서 향유하는 것에 대한 인식 수준이었다. 사회의 발전 과정이나 시스템 구조 등 많은 부분이 이러한 인식 수준의 차이로 인한 것이기에 단순히 이러한 기관들의 프로그램 구조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려는 것보다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현지화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해외 기관의 사례에서 발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작 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항목 또한 존재한다. 교육 항목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관련 대책들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스웨덴의 SFI 기관에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히려 본 팀이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진행중인 시니어 영화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SFI 또한 시니어 관객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할 것 같다는 대답을 해 주었다.

나. 무계극장 모델

A. 웹사이트 : <https://mugyehub.wixsite.com/mugye-hub>



무계극장 (MUGYE_hub) 웹사이트 홈 캡처화면

무계(無界)극장은 경계없는 극장을 꿈꾸는 기관이다. 영화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지적 권리라는 사명 아래, 무계극장은 아이들과 어르신들, 영화관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모두가 다양한 영상 예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턱없는 영화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무계극장은 공공기관, 지역 자치 단체, 그리고 대중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며,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의 기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고, 정보 공유를 통해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또한 소외 계층의 영상 예술 문화 향유의 활성화 및 접근성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영상 예술 문화 내 존재하는 계층 간 장벽들을 허물고 향유층의 질적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무계극장은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도 영상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5개의 거점을 설립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이가 평등하게 영화를 '복지'로서 향유하는 그 날까지 국내에 다양한 영화복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세상에 알릴 것이다.

무계극장의 프로그램 소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영화를 매개한, 장벽을 해소하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프로그램 큐레이션 기준은 ① 비수도권 및 지역격차 해소 ② 대상별 교육 ③ 장애친화 및 취약계층 친화이다.

무계극장은 일반 관객으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들에 참가할 것을 유도하며, 문화복지 관계자들로 하여금 소개된 프로그램들을 새로운 문화복지 정책에 반영하고, 프로그램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모델로 삼을 것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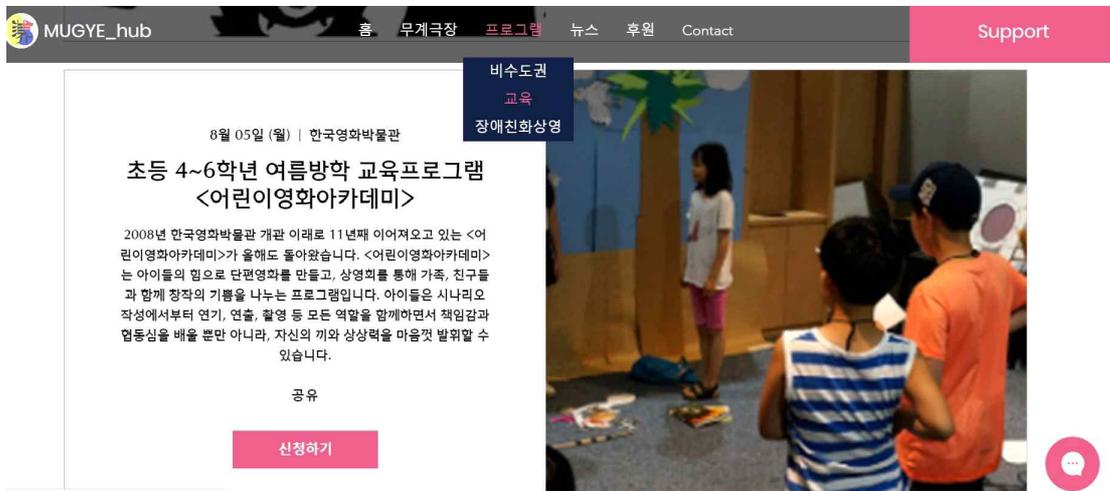
B. 국외기관 사례 현지화 방안

첫째로, 무계극장은 Accessible Screenings UK와 영국 영화 배급사 협회(Film Distributors' Association)의 (<https://launchingfilms.com>)의 사례를 참고하여 웹 홈페이지를 (<https://mugyehub.wixsite.com/mugye-hub>) 통해 사람들이 미처 존재하는지 몰랐던 영화 문화 향유 복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제안해 그들의 미디어 향유 및 교육 권리를 넓히고 선택권을 부여한다. 무계극장은 '프로그램' 메뉴 아래 '비수도권', '교육', '장애친화상영' 카테고리를 분류해 각 분야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본 프로그램의 공식 웹사이트로 접속되어 신청할 수 있다. 직관성과 실용성을 고려한 웹사이

트다. 무계극장은 각지에 흩어진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 집합한 ‘허브’인 셈이다.

둘째로, 무계극장은 지역도서관을 비롯한 복지문화센터와의 연계를 맺고자 한다. 무계극장이 한국영상자료원과 같은 공공기관과 지역도서관, 복지문화센터를 잇는 중간다리, 즉 허브(hub)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외에도 국내 멀티플렉스 3사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는 현재 배리어프리영화 상영을 매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영화관 측의 활발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배리어프리영화’, ‘화면해설 영화’, ‘가치봄’ 등 영화의 명칭이 하나로 확정되지 않은 채 혼용되고 있는 탓이기도 하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영화 정보와 상영 일정 등의 영화 정보는 국내 점유율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상위 랭킹 정보로 뜨지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무계극장은 멀티플렉스 3사에서 진행하는 영화 상영 정보를 한 곳에 집합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필요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스크리닝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접근 가능한 허브와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할 것이다.



무계극장 웹사이트의 ‘프로그램’ 메뉴와 ‘비수도권’, ‘교육’, ‘장애친화상영’ 카테고리



무계극장이 소개한 프로그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는 한국영상자료원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셋째로, 기업과의 제휴를 맺고자 한다. 픽처하우스(Picturehouse)의 경우 알콜 브랜드 기업과의 제휴를 맺었다. 알콜 브랜드 기업이 픽처하우스의 상영 프로그램에 기업의 알콜 제품을 협찬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긍정적 홍보 효과를 얻은 셈이다. 이처럼 꼭 알콜 제품군이 아니더라도, 무계극장은 영화 관람에 적절한 음식류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과의 제휴를 맺어 '찾아가는 영화관',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상영회에서 제품을 협찬해 풍부한 상영 프로그램을 도모하는 동시에 무계극장을 재정 총원의 기회를 만들 것이다.

넷째로, 클라우드 펀딩을 하고자 한다. 온라인상 클라우드 펀딩을 게시해 무계극장의 역할과 목표를 소개해 대중에게 후원금을 받은 후, 그에 대한 보답, 즉 리워드로 무계극장 웹사이트에 후원자의 명단을 게시하거나, 연계한 지역도서관이나 지역 복지문화센터의 미디어 센터의 천장 벽이나 좌석에 아트웍(Artwork)과 같이 명단을 새겨 무계극장의 재정 총원의 기회를 만드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미디어 향유 권리 확대에 기여하는 후원의 의미를 기념하고자 한다. 천장 벽에 후원자의 이름을 근사한 아트웍과 같이 새긴 영국의 Hackney Picturehouse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다. 느낀 점

처음 탐사를 계획할 때 관련 사이트와 논문 등 정보를 찾아보면서 기관에 대해 막연히 상상하던 것과,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달랐다.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현지 기관 관계자분들이 무척 친절하게 맞이해주셔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시네마 디프런스에서 자원 봉사자 조끼와 포스터를 선물로 받은 것, 시네마떼끄 프랑세즈에서 영화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티켓을 나눠주시고 직접 가이드 역할도 해주셨던 것, 영국 이스트 델위치 픽처하우스의 인터뷰이였던 Leah가 영화 티켓 4장을 사주셔서 영화 관람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 등, 관계자분들의 배려 덕분에 탐사가 더욱 알차고 즐거웠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언어의 중요성, 특히 영어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과의 상호작용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의 인터뷰는 언어 사용의 한계 때문에 어색했고 팀원들도 질문을 쉽게 꺼내지 못했다. 그러나 점차 영어를 듣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인터뷰가 매끄러워졌고 내용도 더욱 풍부해졌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영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무계극장 팀의 경우 선발되기 훨씬 전인 1~2월부터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국내외 여러 기관과 미리 컨택을 했던 덕분에 좋은 기관들을 많이 방문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관계자와의 소통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 컨택으로 첫인상이 결정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또한 존재했다. 영화복지에 있어서 격차해소의 기준 중 소득격차에 관한 사례가 해외에서도 충분히 발견되지 않은 점이다. 본 팀은 탐사 전 소득분위별 혜택 사례, 저소득층을 위한 기획 등을 기대했으나,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웠다. 또한 Screen25의 컨택이 마지막까지 성사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인터뷰어 Leah의 소개로 Picturehouse를 방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Des séances pour tous.” Ciné-ma différence. 2019, accessed July 17, 2019, <http://www.cinemadifference.com>.
- [2] “Groupe.” Cinémathèque Française 홈페이지. 2019년 7월 11일 접속. <https://www.cinematheque.fr/groupe.html>.
- [3] “Hackney Picturehouse” Hackney Picturehouse. accessed July 7, 2019, https://www.picturehouses.com/cinema/Hackney_Picturehouse.
- [4] “BFI: Homepage” BFI. accessed July 7, 2019, <https://www.bfi.org.uk/>.
- [5] “Access to programme”, HOME, accessed July 17, 2019, <https://homemcr.org/accessibility/>.
- [6] “Trans Creative at the Movies”, HOME, accessed July 17, 2019, <https://homemcr.org/event/trans-creative-at-the-movies/>.
- [7] “Pay What You Can/ I, Daniel Blake”, HOME, accessed July 17, 2019, <https://homemcr.org/film/pay-what-you-can-i-daniel-blake/>.
- [8] “극장 - 운영주체 카테고리 : 영화사 백두대간.” 아트하우스 모모 홈페이지. 2019년 7월 16일 접속. http://www.arthousemomo.co.kr/pages/about_company.php.
- [9] “Types of Screenings.” Accessible Screenings UK. last modified July 17, 2019, accessed July 17, 2019, <http://accessiblescreeningsuk.co.uk>.
- [10] “UK FILM RELEASE SCHEDULE.” Film Distributors’ Association, last modified July 17, 2019, accessed July 17, 2019, <https://launchingfilms.com>.
- [11] “7월 가치봄 작품과 상영 일정 안내.” CGV. 2019년 7월 1일 수정, 2019년 7월 17일 접속, <http://www.cgv.co.kr/culture-event/event/detail-view.aspx?idx=19763&menu=0>.
- [12] “[공지] 메가박스 7월 가치봄(한글자막,화면해설) 상영 안내” 메가박스, 2019년 7월 3일 수정, 2019년 7월 17일 접속, <http://m.megabox.co.kr/?menuId=notice-detail&id=9667>. <http://www.cinemadifference.com/?lang=fr>

[별첨]

보고서 참고 자료

- [1] BFI_Cultural campus_summary report 2016
- [2] BFI_Film_a language without borders_report
- [3] FAN Audience Survey - COL 26.03.18
- [4] HOME-Schools-2018
- [5] HOME-Schools-교사용가이드라인-2018-2019
- [6] wychavon지역공동체상영지침서
- [7] 치매친화상영프로그램 tool box

인터뷰 서면 답변 자료

- [8] Interview(FilmHubNorth)답변
- [9] Interview(SFI)답변docx